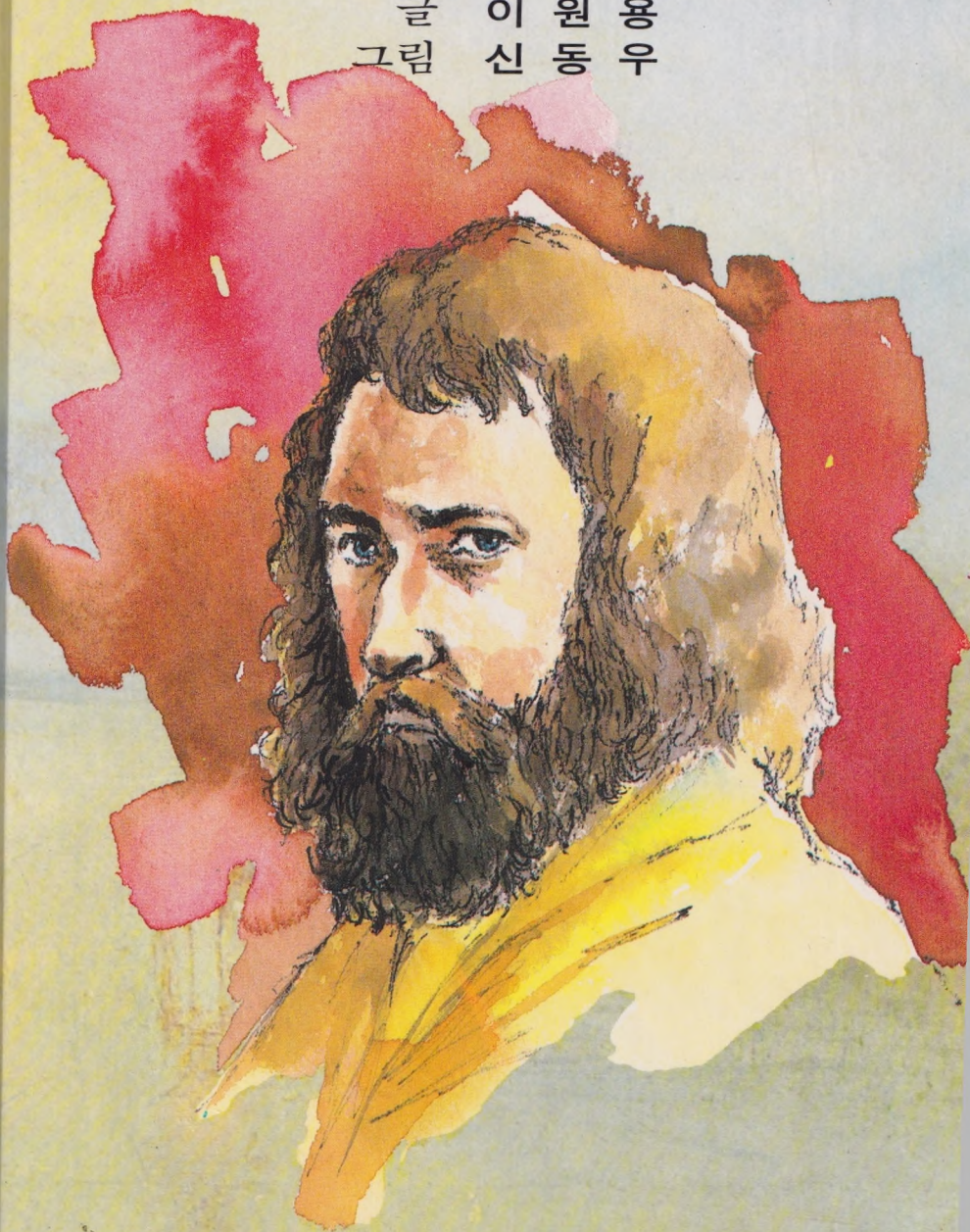


세계편 / 소년소녀 위인전기 14

밀 레

글 이 원 용
그림 신 동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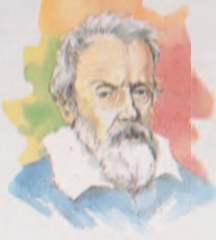




인류의 스승
1 그리스도



항해 탐험가
2 콜롬부스



자연 과학의 아버지
3 갈릴레이



근대 과학의 건설자
4 뉴 우 톤



가곡의 왕
9 슈베르트



동화의 아버지
10 안데르센



노에 해방의 대통령
11 링 킨



진화론의 창시자
12 다 아 윈



새군학의 창시자
17 파스티르



군중학자
18 파 브 르



러시아의 문호
19 돌스토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20 노 벨



뛰어난 물리학자
25 퀴리 부인



비행기의 발명자
26 라이트 형제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27 간 디



밀림의 생자
28 시바이찌



근대 교육의 창시자
[5] 페스탈로찌



천재 음악가
[6] 모짜르트



유럽을 정복한
[7] 나폴레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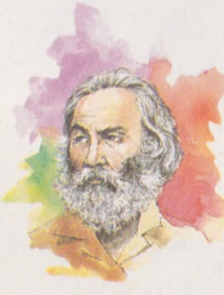
악성
[8] 베토벤



아프리카의 탐험가
[13] 리빙스턴



농민을 그린 화가
[14] 밀레



민주주의의 시인
[15] 휘트먼



백의의 천사
[16] 나이팅게일



발명왕
[21] 에디슨



정열의 화가
[22] 고호



북극 탐험가
[23] 난센



중국 독립의 아버지
[24] 쑨원



천재 물리학자
[29] 아인슈타인



여류 교육가
[30] 헬렌 켈러



흑인 가수
[31] 마리안 앤더슨



뉴프런티어의 기사
[32] 케네디

세계편/소년소녀 위인전기 14

밀레

글 이원용
그림 신동우



금성출판사

포라스와 멀레는 전세계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동굴에서 태어나 동굴에서 살며, 동굴을 그
 리다가 간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다 익
 어서 머리를 숙인 곡식을 겨누어들이면서 그는 동굴
 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소박하고 정직하며, 한 인
 의 이삭이라도 흘리지 않고 주워 담는 농부의 마음

머 리 관





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없는 마음이 그의 그림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화폭에 담겨 있는 그림들은, 그가 자라면서 보고 느낀 그대로의 진실들이며, 그가 항상 동경한 세계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의 그림 앞에서 경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밀레의 전기를 읽는 가운데, 꾸밈없이 노력하는 길이 자기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데에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가를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노래

“프랑스와 ! 그만 일어나거라. 새들이 하느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단다. 어서 일어나거라.”

프랑스와가 새근새근 평화스럽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귓가에 할머니가 입을 바짝 대고는 속삭이셨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와가 눈을 떴습니다. 창 밖이 환했습니다. 햇빛이 한창 눈부시게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레의 생가





종다리의 울음 소리도 들려 왔습니다. 종다리의 맑은 소리가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종다리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곤두박질하며 발으로 내려오면서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하늘로 아득히 날아올랐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프랑스와는 창 밖의 경치를 내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노라면,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고향에 있는 시골 사람들의 부지런한 모습과 생활이 그림계 떠올랐습니다.

(본문 88 페이지에서)







차 례

머리말	2
하느님의 노래	8
폭풍이 일던 날	22
거지 손님	29
국민 학교 1년생	36
마을의 축제	42
대장간 주인	47
무세르 선생님	53
아버지의 죽음	66



파리로 가다	72
친절한 선생님	79
다시 싫어진 파리	92
새로운 생활	105
슬픈 소식	113
목사님	120
즐거운 친구	128
농군이 그린 그림	136
1 등상	144
해설 · 연표	154
■ 학습 인명 사전	161



네파랴게 펼쳐진 밭이 보였습니다.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아득히 뻗쳐 있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인 보리 이삭이 흔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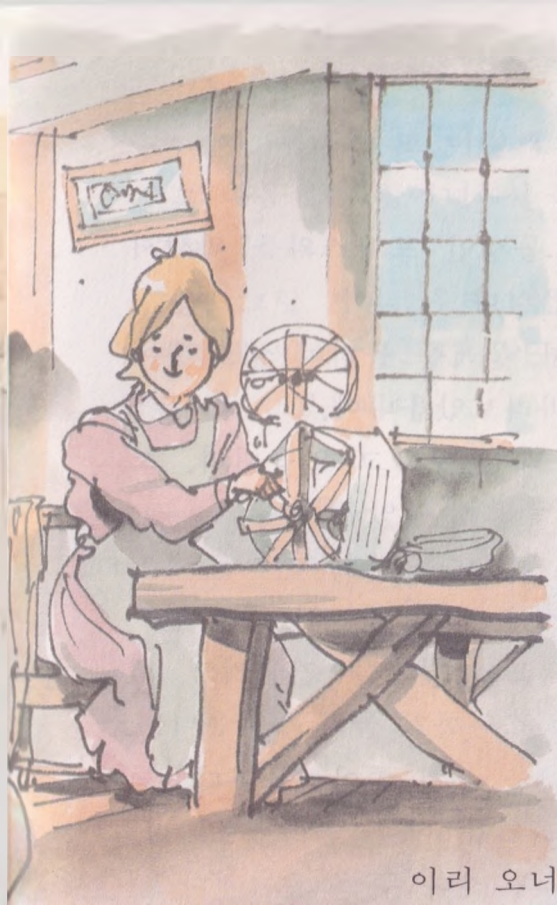
“할머니, 종다리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 맞았다. 하느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단다.”

“하느님의 노래요?”

하고 프랑스와가 눈을 동그랴게 뜨고는 물었습니다.

“그렇고말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노래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파아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리가 알차게 영글라고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지저귀고 있는 거란다.”

할머니는 팔을 벌리고는 종다리가 노래하는 흥내를 냈습니다. 그러시면서 춤을 추며,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자, 프랑스와야, 그만

이리 오너라. 아침 식사를 해야지.”

할머니의 이름은 쥐무룽이라고 합니다. 상냥하고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벌써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안에는 할머니, 에메리 누나, 그리고 프랑스와만이 남아 있어서 조용하기만 합니다.

프랑스와의 나이는 여섯 살이며, 에메리 누나는 여덟 살입니다. 누나는 하얀 형겔으로 만든 고운 신을 신고 있습니다.

누나는 조그마한 손으로 물레를 돌리며 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물레가 빙글빙글 돌자 실이 감겼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또 이렇게 한 마디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께서 음식 만드시는 것도 그리는 거야.”

“응, 그럴 거야. 우리 식구들을 모두 그럴 테야!”

이렇게 말하는 프랑스와는 무척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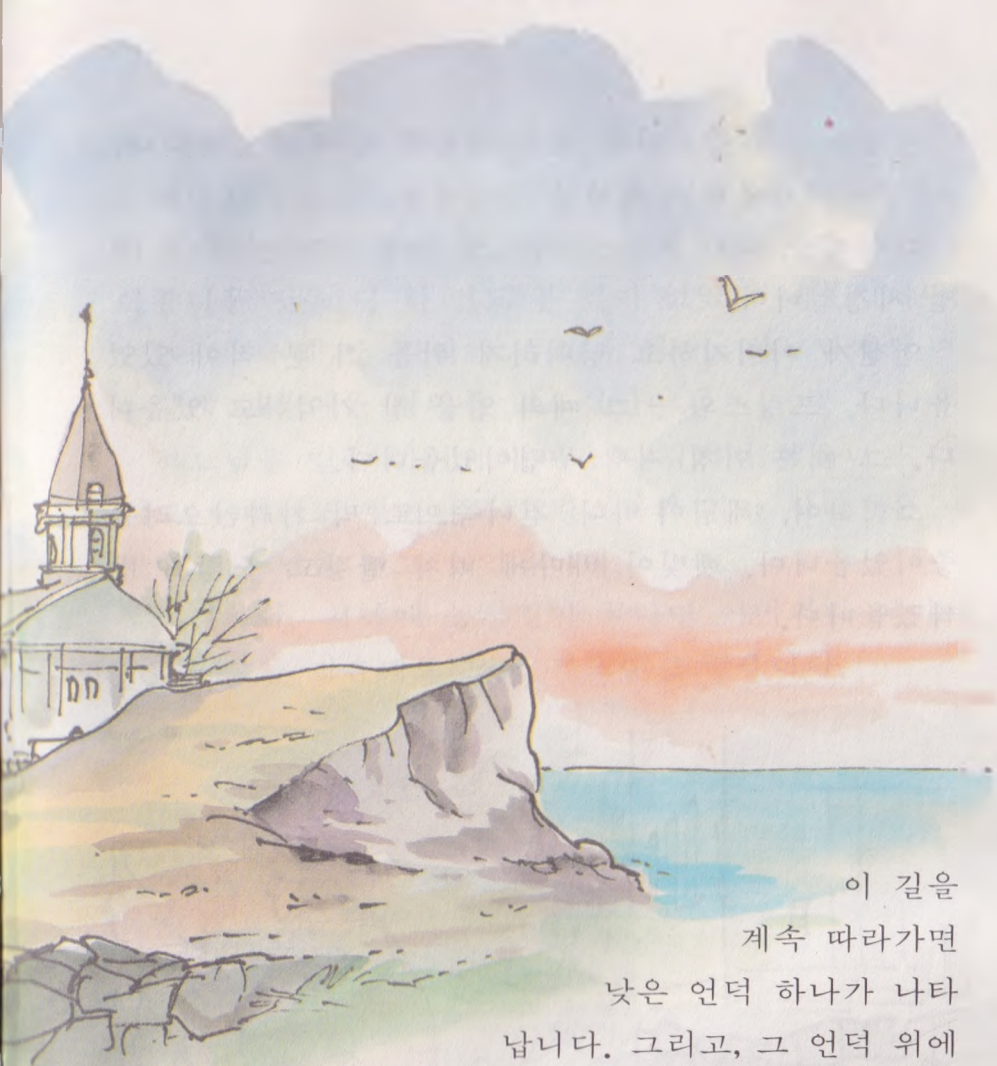


물 놀이

프랑스와는 1814년에 북부 프랑스의 세르부르 근처에 있는 그뤼쉬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풀로 지붕을 이은 시골집들이 몇 채
흩어져 있었으며, 좁다란 길이
꼬불꼬불 집 있는 데까지
나 있었읍니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낮은 언덕 하나가 나타
납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교회의 뾰족한 지붕이 보입니다.

교회의 뒤쪽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낭떠
러지의 위까지 가 보면, 저 멀리에 넓디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낭떠러지 밑에 있는 바위에 부딪쳐
무서운 소리를 내며 부서집니다.

“프랑스와야, 혼자서 낭떠러지 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어른들이 프랑스와를 보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큰일나요.”

그렇지만, 어린 프랑스와는 그 곳에 가고 싶어 못 견딜 지경입니다.

언젠가 아버지하고 낭떠러지 위를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는 그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마침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님이 바다 건너쪽으로 막 가라앉으려는 중이었습니다. 햇빛이 바다에 비쳐 빨갛고 노랗게 반짝였습니다.



“아빠, 아주 아름다워요.”
 포라스와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라스
 와로서는 그런 만큼 한 만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속에 참 간직해 두도록 해라. 하느님께서 이
 려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셨다.”
 하느님을 믿는 아버지의 마음은 짝기만 했습니다. 그
 리고, 어머니도 할머니도 포라스와의 집안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느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저녁때 식사일이 끝나면 아버지나 어머니
 는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도 편안히 지내게 해 주셨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프랑스와의 아저씨는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은으로 된 십자가를 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와가 이웃에 있는 동무들과 어울려 숲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 쪽에서 목사인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아저씨, 우릴 낭떠러지로 데려다 주श्य요, 예?”

프랑스와가 이렇게 졸라 댔습니다.

“낭떠러지 위에는 빛 하려고?”

“바다를 구경하려고 그래요.”

아저씨의 물음에 프랑스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데려다 주지. 그렇지만 너희들 혼자서는
가면 안 된다. 아주 위험하니까 말야!”

아저씨는 마음씨가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더웠습니다.

프랑스와와 그의 동무들을 낭떠러지까지 데려다 주
신 아저씨는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 근처에서 놀도록 해요.”
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꼬마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고는, 기다리시다가 그만 졸음이 왔습니다. 아저씨는 나무 밑동에 앉으신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프랑스와의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와야, 우리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렇지만, 아저씨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저씨 잠드셨으니까 괜찮아. 이럴 때 살짝 가 보고 오면 될 게 아냐!”

옆에서 다른 아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곧 돌아오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더우니 물에 잠깐 들어갔다 오자. 바닷속에는 물고기도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을 듣자 프랑스와도 바다에 들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금만 돌아 가면 바다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들은 덩굴에 매달리며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야아! 정말이다. 물고기가 있어. 우리 잡자. 너는
저 쪽에서 물고 와.”

어린이들은 신을 벗어 던지고는 맨발로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아! 잡았다.”

어린이들은 물고기를 잡느라고 신이 나서 텀벙거리
며 뛰었습니다.





폭풍이 일던 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바다의 물결도 조용하고 잔잔했습니다.

파아란 바다 위로 배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돛이 바람을 가득히 안아서 배가 불룩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배를 바라보며,
“정말 멋있는데. 저런 배를
타 봤으면 좋겠다!”



부러워서 한숨까지
쉬어 가며 중얼
거렸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때로 무서운 폭풍이
입니다. 바람이 세차
게 불고 비까지 몰고
옵니다. 그러면 잔잔
했던 바다는 산더미
같은 파도로 바뀌죠.

어느 일요일이었
습니다.

그 날은 아침부터
날이 흐렸으며, 바람
이 거세게 불었습니
다. 이윽고 비까지
몰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
회에 모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
은 조용하고 엄숙하
기만 했습니다. 프랑
스와의 아저씨인 목
사님의 기도 소리만
울려 올 뿐입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교회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 주श्य. 문 좀 열어요!”

교회의 출입문을 열어 주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
왔습니다.

“큰일났어요. 어서 모두들 와 줘요!”

그 사람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몸에서 물방울이 비오듯이 떨어졌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모두들 좀 도와 주श्य요!”

교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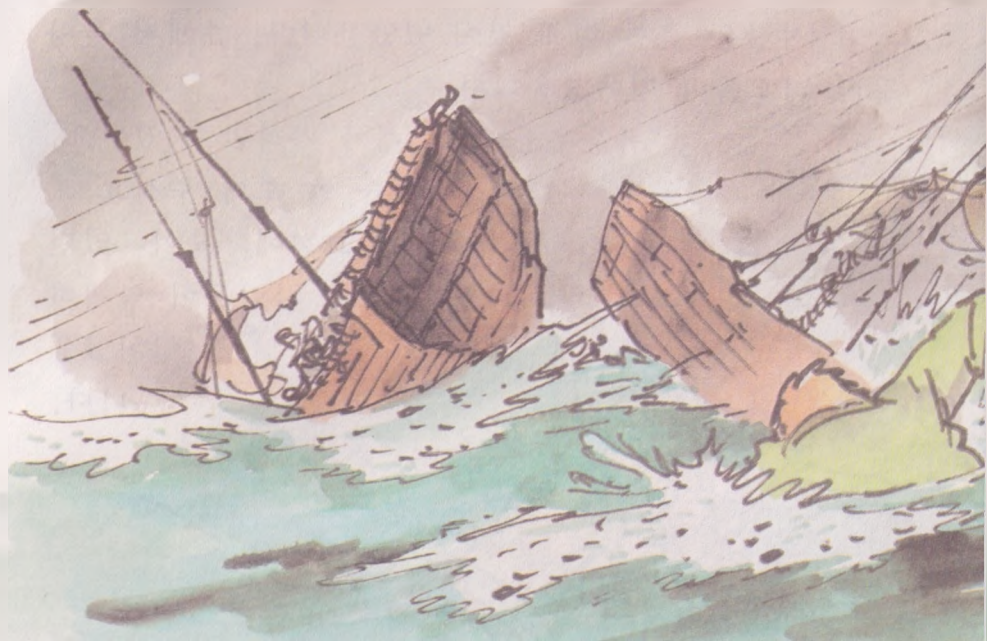
니다.



“자아, 어서 도와 줍시다. 모두들 바닷가로 모이도록 해요!”

남자들이 달려 나갔읍니다. 그들은 다 같이 바닷가에 모였읍니다.

산더미 같은 커다란 파도가 사나운 소리를 내며 밀려왔습니다.



바다 저 쪽에서 5, 6척의 배가 이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 배들이 바위에 부딪치면 단번에 부서져 버릴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도와 줘야겠어!”

“그래요. 빨리 도와 주러 갑시다.”

기슭에 있던 남자들이 보우트에 올라타자 이내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앞으로 조금 나갔다가도 산더미 같은 파도에 되밀리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보우트를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젠 할 수 없어요.”

“그럼, 저 배가 바위에 부딪쳐 깨지거든 모두들 헤엄쳐 나가 구해 주도록 합시다.”

이러고 있을 때도 배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커다란 바위에 부딪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나갑시다.”

남자들은 일제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물결을 헤치고 선원들을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적거리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자아, 어서 앉으라니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지를 억지로 자기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거지는 굳어진 채 테이블을 향해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불 위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 남비를 식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남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수우프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맛있는 수우프를 접시에 골고루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거지 앞에 갖다 놓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에메리, 그리고 프랑스와의 차례로 담아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신원들은 그만
과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폭풍은 저녁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라앉았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각각 마을 사람들의 집으로 옮겨져
정성어린 간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프랑스와가 낭떠러지로 나
가 보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바위 위에
누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 옆에서 프랑스와의 할
머니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
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곳
에 앉아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 손님

어느 날 저녁때였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때, 현관 문이 열리며 이런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제발 좀 도와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지
였습니다. 누더기옷을
걸치고 찢어진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
습니다.





“뭇이든 먹을 걸 조금만 주셔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자아, 어서 들어와요.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밖이 무척 추울 테니.”

할머니는 현관까지 거지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곳이면 됩니다. 여기서 먹도록 해 주셔요.”



“그렇지만, 그 곳은 추워요.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불을 켜어 몸을 녹이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할머니는 상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지를 방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여기에 앉아요.”

이런 말을 듣자 거지는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석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손님이니까 여기 와서 앉아요.”

거지가 왜 이렇게 찢찢매매 사양하는 것일까요?

거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곳은 바로 할머니가 앉으시는 제일 좋은 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뒤에 커다란 난로가 있었으며, 콧직한 장작이 소리를 내며 새빨갳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불기운이 허리 언저리를 감싸 주어서 훈훈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들도록 해요.”

배가 찢 때까지 마음대로 먹게 한 것이지요. 거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마와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난 거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제 말 좀 들어 보श्य. 어쩌서 거지에게 그렇게 잘 해 주시는 거여요? 저는 아무래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거지가 돌아간 후에 에메리가 물었습니다.

“제일 좋은 의자에 앉히고, 또

제일 먼저 수우프를 주고…….

우리들보다 거지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

인가요?”



“그건 말이야…….”

하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니?
그리고, 따스한 옷도 입고 있고, 또 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지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은 옷도
너희들이 본 대로 다 떨어진 것이었어. 게다가 밤이
되어도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숲 속의 나무 밑이
나, 어떤 집 추녀 밑에서 웅크리고 잘 수밖에 없단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더 잘 해 주어야 되지 않

겠니? 그렇게 해
줘도 너희들보다 행
복하지 않아.”

이렇듯 할머니는 언
제나 불쌍한 사람들에
게 잘 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와는 할머니
의 말씀이 옳다고 생
각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할머
니, 아주 멋진 할머
니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프랑스와는 할머니를
좆라서 재미있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국민 학교 1년생

프랑스와의 아버지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모두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언제나 노래를 불러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고, 어린이들을 모아 합창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밀레 아저씨, 노래 좀 들려 주세요.”

마을 어린이들이 프랑스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줄라 댔습니다. 프랑스와의 아버지는 이름을 장 밀레라고 합니다.

밀레란 아버지 쪽의 성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와도 프랑스와 밀레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불러 달라고 조르면, 밀레 아저씨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멋진 합창을 하나 들려 주면 나도 노래를 부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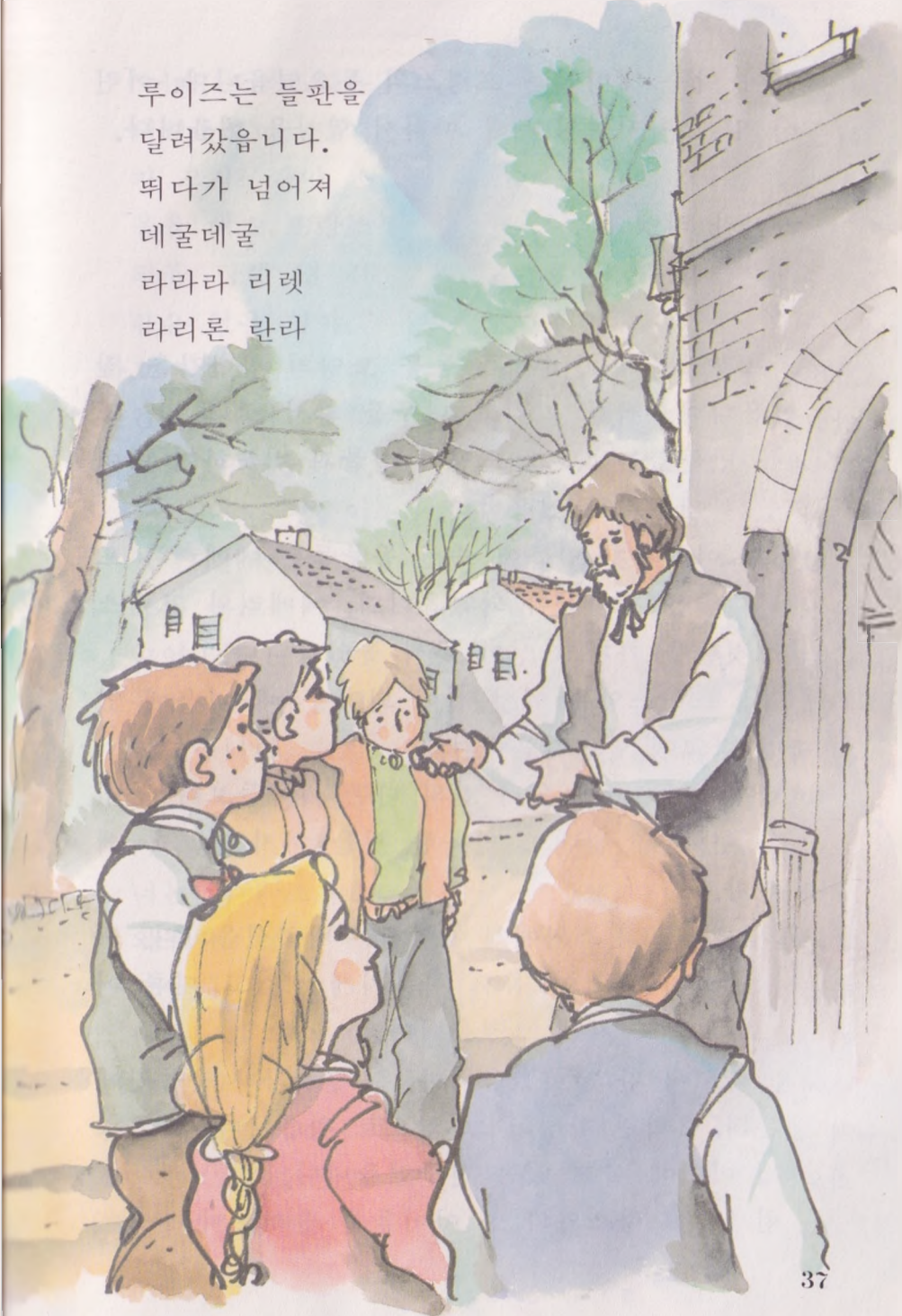
그 바람에 어린이들이 소리를 모아 합창을 먼저 하였습니다.

“다들 잘 불렀어요.”

“이번엔 아저씨 차례예요.”

“그럼, 너희들이 잘 부른 상으로 재미있는 노래를 들려 주마.”

루이즈는 들판을
달려갔습니다.
뛰다가 넘어져
데굴데굴
라라라 리렛
라리론 란라



가락이 아주 재미있는 프랑스의 동요였습니다. 어린
이들이 밀레 아저씨의 뒤를 따라서 합창을 했습니다.

라라라 리렛

라리론 란라

또, 프랑스와의 아버지는 동물 모양의 장난감을 잘
만들었습니다. 꿀을 가지고 나무를 파서 소나 말, 또
는 새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실물과 비슷하여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동물들은 에메리나 프
랑스와의 좋은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에메리와 프랑스
와는 그것들을 가지고 신이 나서 놀았습니다.

그 후, 프랑스와는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있
는 국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와야, 너는 우리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
이 큰 편이다. 절대로 난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선생님께서 프랑스와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프
랑스와는 키가 컸으며, 몸도 다부지게 생겼고, 다른 어
린이들보다 힘도 세어 보였습니다.

처음 학교에 간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와가 운동장에
서 있는데, 2학년 학생이 그 옆으로 왔습니다. 프랑스
와의 집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프랑스와의 반 아이들을 둘러보며,

“어때, 프랑스와는
너희들보다 덩지
가 크지? 아마 싸
움을 해도 프랑스
와를 당해 낼 사
람은 없을 거야.”

하고 말하자, 포올이
라는 아이가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흥, 나도 기운이
세단 말이야. 프랑
스와 정도는 문제
없어!”

몸집이 아주 큰
아이였습니다.

“그래 그래. 네 말
이 맞았어, 포올.
너는 아마 프랑스
와보다 힘이 셀
거야.”

다른 몇 명의 아
이들이 포올을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
리고는 포올을 앞으
로 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지?”

하고 2학년 학생이 포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누가 힘이 센지 겨루어 보렴.”

그러자, 포올이 프랑스와에게 먼저 덤벼들어 프랑스와를 힘껏 밀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엉클어졌습니다. 힘이 서로 엇비슷했습니다. 두 어린이는 한동안 앞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서로 위에 올라탔다가 밑에 깔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올이 계속 밑에 깔린 채 프랑스와
를 밀쳐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와가 이긴 것
입니다.

“이제 그만. 그것 봐. 프랑스와가 훨씬 힘이 세단
말이야. 나이가 너희들보다 아래인 여섯 살인데도
저 정도야. 어때, 대단하지?”

2학년 친구가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뽐
냈습니다.

프랑스와는 이렇게 힘만 세었을 뿐 아니라, 공부도
잘 했습니다. 이미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베세〉(프랑스 글자)를 쓸 수 있었

으니까요. 게다가 마음씨도 곱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에게나 친절히 잘

대해 주었

습니다.





마을의 축제

프랑스와는 곧잘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할 일이 많아 언제나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기도 했고 보리도 거둬들였으며, 타작도 했습니다. 때로는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밭 건너
편에는 목장이
있었는데 양을 많이
길렀읍니다. 누나인 에메리는
그 곳에서 양을 지키며 망을 보았읍니다.
프랑스와는 자기가 맡은 일을 끝내면 누나를 마중하
러 나갔읍니다. 그리고는, 양을 망보고 있는 누나의 모
습을 그림으로 그렸읍니다.

“이봐, 프랑스와야, 너는 화가가 되는 것이 좋겠어.”

“어떻게 하면 화가가 되지, 누나?”

프랑스와가 에메리에게 물었읍니다.



“그건, 그림 선생님에게 그림 그리는 공부를 배우면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는 선생님이 없는걸.”

“그러니까 더 큰 마을로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뭘 못 한다고 그러니, 프랑스와야?”

“난 농삿군의 아들이니까 집에서 밭일을 해야잖아?”

프랑스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했으므로 도시로 나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슬퍼하거나 원망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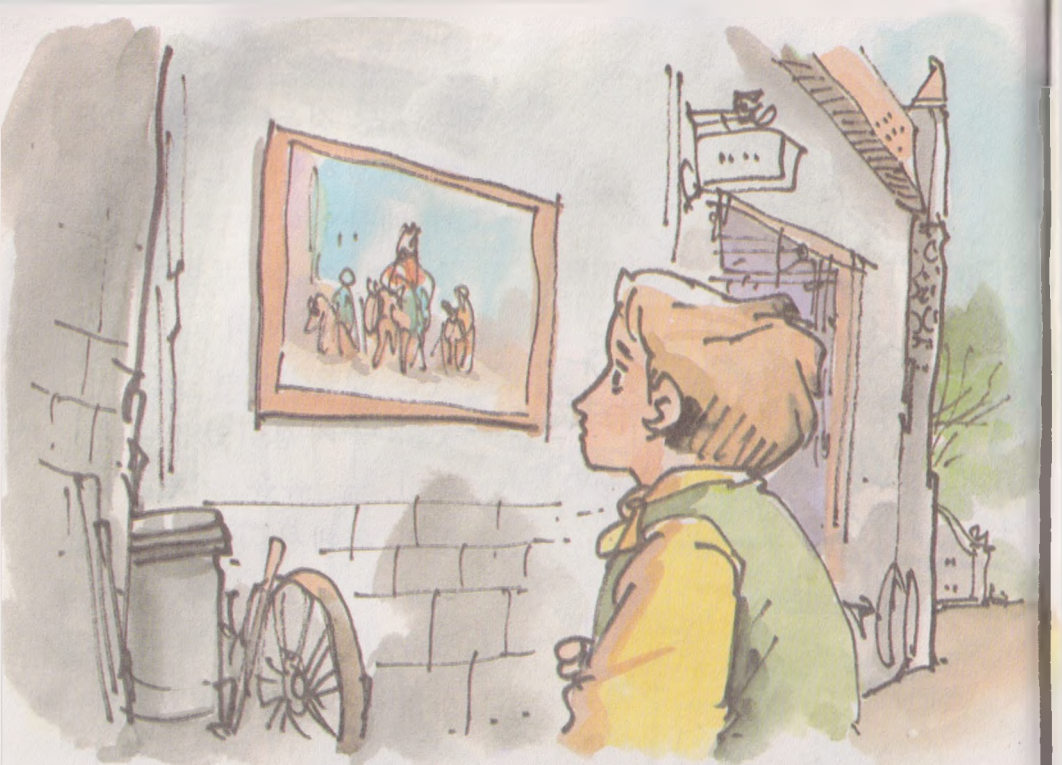
그리는 것도 좋지만, 밭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뿌린 씨에서 싹이 나서 커가는 것을 보면 기뻐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숲 속을 거닐거나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을에 축제가 있었읍니다. 그 날, 프랑스와가 스케치북을 들고 밖으로 나오니, 건너편에서 말 탄 세 사람이 오고 있었읍니다. 몸집도 큰 어른들이 조그마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으므로, 프랑스와는 길 옆에서 그것을 그렸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그림을 아버지가 보고는 아들의 솜씨가 놀랍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며칠이 지났읍니다. 프랑스와는 마침 마을에 있는 대장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얼핏 가게 앞을 보니 그 곳에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었읍니다.



“어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 어른들이 작은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이었읍니다.
바로 축제가 있던 날 프랑스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그림이……?”

프랑스와는 이상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 까닭
을 알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프랑스와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읍니다.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제 그림이 대장간에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

“거기에는 이런 까닭이 있단다.”

하고 아버지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프랑
스와가 그린 그림
이란 말이지?”

“그렇다니까. 그래
서 나도 약간 놀
라서 이렇게 가져
와서 자네에게 보
여 주는 거라네.”

“그렇다면 이 그
림을 나한테 주지
않겠나?”

“그건 곤란한데.”

“뭐가 곤란하다는
말인가?”

“프랑스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

거든. 프랑스와의 그림
이니까 그 애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다면 얼마 동안만 빌려 주게나.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게 말이야.”

“그럼 꼭 돌려 줘야 하네.”

“염려 말게, 꼭 돌려 줄 테니. 분명히 약속하겠어.”

이렇게 해서 프랑스와의 그림이 그 곳에 진열되었으
며, 마을 사람들이 그 그림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 모여 서서,

“프랑스와란 아이는 정말로 재주가 있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아마 멀지 않아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화가가 될지도 모르겠어.”

하며 저마다 한 마디씩

프랑스와의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애야, 너 화가가 되고 싶지 않니?”
하고 프랑스와에게 물었습니다.

“예, 아빠. 저도 전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아빠에게
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니? 집이 가난해서 그
랬단 말이나?”

“그런 것만은 아니어요. 우리 마을에는 그림을 가르



쳐 줄 만한 선생님도 안 계시고, 또 농사짓는 일 이외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내 말 좀 들어 보렴. 네 동생들도 다 자라서 이제는 네가 집에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단다. 그러니, 네가 만약 정말로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어.”

“그럼, 정말 제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그렇게 해 주고 말고.”

“아빠, 감사합니다.”

프랑스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눈을 반짝이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선생님이 대한 문제는, 아까 이장님한테 여쭙어 보았더니 셰르부르 마을에 무셰르라는 그림 선생님이 계시다는구나. 그래서, 이장님이 너를 그 선생님께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단다.”

“그럼, 그 선생님이 제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요?”

“글쎄다, 그것은 선생님께 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나는 너를 그 선생님에게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네 그림을 그분에게 봐 달라고 할 작정이야. 그래서, 장차 가능성이 있으면 선생님의 제자로 해 달라고 부탁할 셈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길로 프랑스와를 데리고 셰르부르로 가셨습니다.



무셰르 선생님

시골에서만 자란 프랑스와는 커다란 도시를 처음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을 깔아서 만든 널찍한 길, 높은 건물, 그리고 그 우뚝 솟은 건물에는 커다란 시계가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시계 좀 보세요. 아주 큰 시계가 걸려 있어요.”

프랑스와가 건다 말고 서서 시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프랑스와의 집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림에서 시계를 보았을 뿐입니다.

신기해서 올려다보고 있는데,
“조심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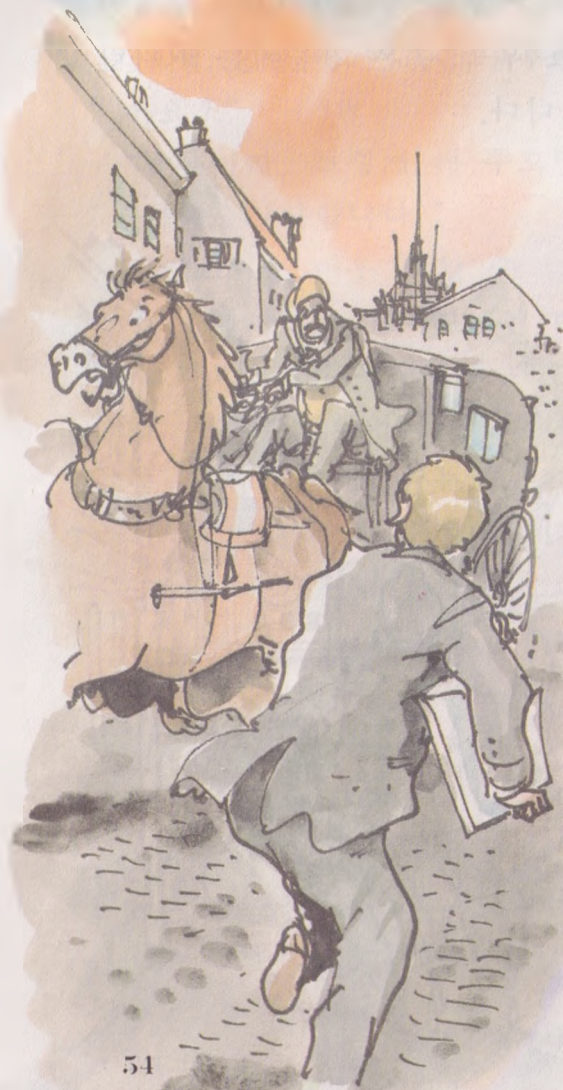
맞은편에서 마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서 있던 프랑스와는 하마터면 마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정신 좀 똑똑히 차리고 다녀!”

하고 마부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마부의 얼굴은 화가 났기 때문인지 빨갛게 달라올라 있었습니다.

“아빠, 도시란 무서운 곳인가봐요.” 하고 프랑스와가 바짝 옆으로 지나가는 마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와야, 이런 도시는 아직도 작은 곳이야. 아마



파리쯤 가 보면 더 놀랄 거다.”

무세르 선생님의 집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는 상당히 멋진 집에서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프랑스와네 시골집보다도 작고 지저분한 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물론 가르쳐 주고 말구요. 여기 있으면서 매일 그
 불니까?”

“그렇다면 우리 프랑스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고 아버지께서는 마치 꾸지람이라도 듣는 사람처럼
 림 잔 물렸습니다.”

“그랬던가요? 저는 그저 시골 농작군이어서 그런 것
 은 잘못이었습니다.”
 “아드님에게 지금까지 패이를 들고 받음 감게 한 것

하셨습니다.
 얼마 후, 신생님이 아버지를 향해 정색을 하며 말쑥
 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림 주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나중 그림에는 밤하늘
 있는 그림이었으며, 다른 한 장은 농부가 거지에게 배
 한 작은 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피리를 불고
 “예, 제가 그런 것이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그린 그림이냐?”

하고 신음하듯이 혼자 말쑥하시더니,

“허어, 그것 참!”

참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신생님은 프랑스와가 집에서 가지고 온 그림들을 한

보였는데, 연꽃빛은 줄을 마신 것처럼 뻗었습니다.

음하셨습니다. 신생님은 뚝뚝하고 키가 작은데다가 텅
 하고 무세르. 신생님이 프랑스와와 아버지를 보시고 만



림을 그리도록 해요. 공부하기에 따라 훌륭한 화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와는 무세르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 프랑스와는 열 여덟 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모한 분이었습니다.

부인도 어린애도 없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키웠읍
니다.



닭, 거위, 개, 고양이, 그리고 돼지까지 집 안에서 길렀읍니다. 아침 일찌기, 아직도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면 돼지가 잠을 깨우러 옵니다. 돼지는 혀를 내밀어 털투성이인 선생님의 얼굴을 마구 핥았읍니다.



“으으응,
돼지가 왔군 그래.

그래, 이제 일어나마.”

하고 선생님은 일어나시면서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개와 고양이, 그리고 닭 들이 어울려 사이좋게 지냈
습니다. 절대로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프랑스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
수록 이러한 생활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급한 소식

무세르 선생님은 프랑스와를 대단히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게. 그리고, 미술관에도 가서 옛날 사람들이 그린 좋은 그림도 자주 그려 보도록 하게. 그러면 좋은 그림 공부가 될 테니까.”

세르부르에는 미술관이 있었읍니다. 프랑스와는 기
 께서 어찌할 바를 몰랐읍니다. 자주
 미술관을 찾아가서, 옛날의
 훌륭한 화가들이 그린
 멋진 그림을
 그려 보았
 읍니다.



그 곳 사람들은 프랑스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주 잘 그리는데, 아마 멀지 않아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력저력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읍니다. 프랑스와가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 댁으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와가 문으로 나가 보니, 그 사람은 대뜸,

“야아, 프랑스와!” 하고 반기며,

“나야 나. 정육점을 하는 포울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도 곧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포을 아저씨가 용케도 이 곳까지 찾아오셨군요.”

프랑스와는 포을 아저씨를 보는 순간 그리운 시골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프랑스와야, 네게 알려 줄 일이 있어서 왔단다.”

“그게 뭔데요, 아저씨?”

“네 아버지께서 병환이시란다.”

“아버지가 병이 나셨다고요?”

“놀라지 말아라. 아버지의 병환이 중하시단다.”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말에
프랑스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중하신가요?”

“그렇단다. 아주 중태란다. 그래서, 너를 곧 데려가려고 온 거야.”

프랑스와는 즉시 아버지가 중태라는 사정을 무세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을 아저씨도 함께 선생님을 만나뵙고는,

“프랑스와를 보내 주십시오. 이 애 아버지



가 프랑스와를 무척 보고 싶어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를 데리고 어서 가 보십시오. 그리고, 프랑스와의 아버지께 꼭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프랑스와가 이 곳에 1년 있는 동안 훨씬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고 포을 아저씨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린 프랑스와는 고향을 향하여 급히 떠났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그 동안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포울 아저씨와 함께 프랑스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프랑스와가 돌아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어머니께서 뛰어나오시며,

“프랑스와가 돌아왔구나. 잘 돌아와 줬다.”

하시며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마, 프랑스와!”

에메리 누나도 달려나와
프랑스와의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안에 계시다. 조용히 들어가거라.”

프랑스와가 아버지의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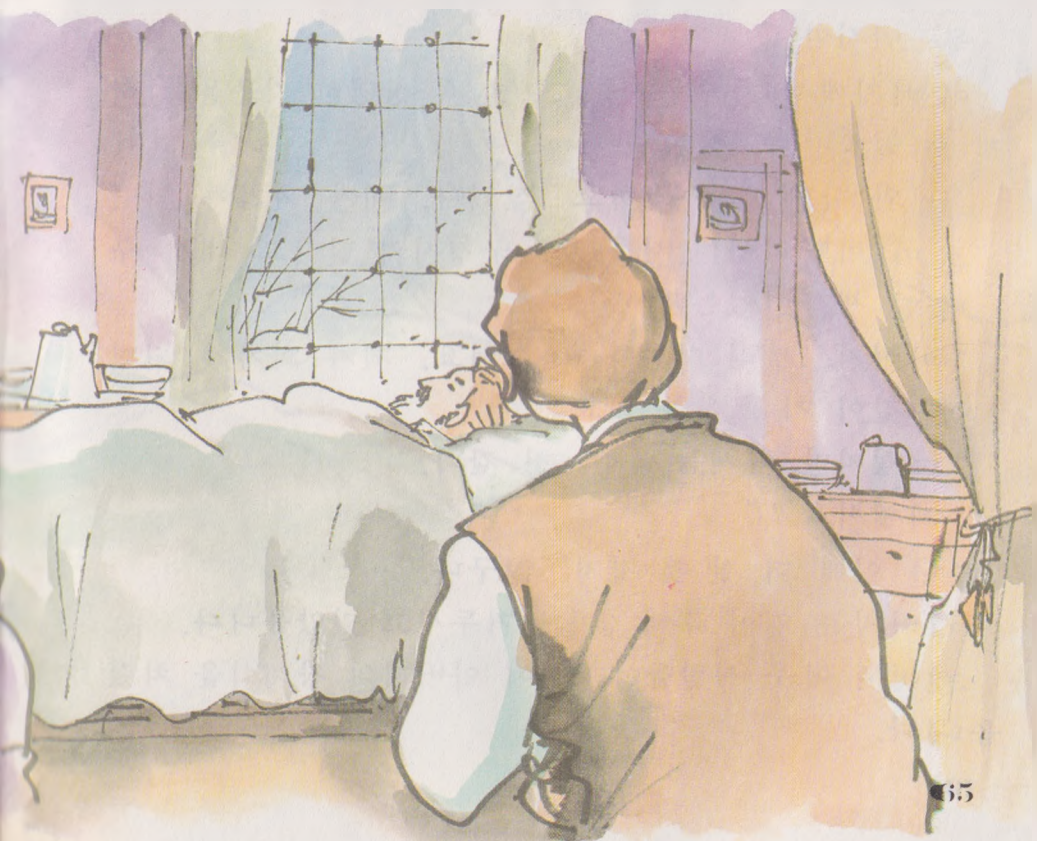
아버지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병이 중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빨리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식구들은 그저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얼마쯤 지나서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여보, 프랑스와가 돌아왔어요!”

하고 어머니께서 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프랑스와를 보았습니다.

“아아, 프랑스와! 네가 돌아왔구나! 잘 와 줬다.
난, 널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프랑스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수우프를 좀 드시겠어요?”

“그래라. 마시게 해 다오. 네가 도와 준다면 수우프를 마시마.”

아버지께서는 수우프를 드신 후 상당히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너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다. 네가 화가가 되면 로마(이탈리아의 서울)를 구경시켜 달라고 네게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아버지, 빨리 병환이 나으세요. 제가 화가가 되면 꼭 같이 가 보도록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틀린 것 같다.”

“어째서요?”

“난 이제 더 살 것 같지 않구나.”

아버지는 얼마 후에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모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프랑스와는 집에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는 그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밑으로는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 들뿐이었으니까요.

프랑스와는 날마다 새벽에 들로 나갔습니다. 밭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릴 셈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르부르에 있는 친구로부터 프랑스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 때, 할머니께서 들어오셔서 편지를 보셨습니다.

“그 편지, 어디서 온 거니?”

하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세르부르에 있는 친구한테서 온 것이에요.”

“그래 뭐라고 써 보냈느냐?”

프랑스와는 그 편지를 할머니께 보여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곧 세르부르로 떠나도록 하거라.”

“그렇지만, 제가 집에 없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저



는 화가가 되는,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와야, 그건 잘 못된 생각이다. 네 아버지는 네가 화가가 되기를 바라셨어. 그러니, 너로서는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게 제일 효도를 하는 길이야. 그렇잖니?”

“그렇지만, 제가 집에 없으면 누가 집안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집안 형편으로 봐서 어렵지 않아요?”

“엄마나 네 누나가 다 건강하고, 또 남동생과 여동생들도 이제는 다 자라지 않았니? 조금만 더 자라면 집안일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할머니, 정말 제가 집에 없어도 되겠어요?”

“상관 없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문제 없다가까 그러는구나. 너는 어서 세르부르로 가도록 해라.”

프랑스와 자신도 하루 속히 세르부르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대로 세르부르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파리로 가다

프랑스와는 세르부르에 도착하자, 곧 랑그르와 선생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랑그르와 선생님은 그 곳 대학의 그림 선생님이었습니다.

프랑스와는 언제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프랑스와, 넌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게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난 네가 파리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볼 테다.”

랑그르와 선생님은 프랑스와의를 위해 여러 가지로 친절히 도와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우선 시의회에 가서, 프랑스와의가 파리에 유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 일을 의논했습니다.

“프랑스와 밀레는 아주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러므로,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세르부르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하고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의 의원이

“그렇지만, 프랑스와 밀레는 세르부르에서 태어나지 않았읍니다. 다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하고 반대를 하였읍
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일
로 논란이 있었읍니
다. 더구나, 세르부
르 시의 시장님이
프랑스와의 편이 되
어 열심히 설명해 주
셨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의회에서
도 프랑스와를 위해
돈을 내기로 했읍니
다. 프랑스와가 파리
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와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읍니다.

세르부르 시의회
에서 돈을 받은 프
랑스와는 일단 고향



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프랑스와가 돌아왔으므로 반가와했으며, 더구나 파리까지 그림 공부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훌륭한 화가가 되어 다오. 더구나, 세르부르 시에서 돈을 대 준다니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하고 어머니께서 프랑스와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랑스와야, 반드시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화가가 되어야 한다!”

하고 누나인 에메리도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들도 프랑스와를 둘러싸고 한 마디씩 했습니다.

“오빠, 잘 해야 돼요. 힘을 내세요!”

“형! 열심히 하세요.”

동생들은 프랑스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만은 엄숙한 얼굴을 하고 프랑스와를 쳐다보며,



“하느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차라리 네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예,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겨 두겠어요.”

하고 프랑스와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하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먼 곳에서 공부하는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려 주세요.”

프랑스와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대장간 주인인 작 아저씨를 비롯해서, 정육점의 포올 아저씨까지도 프랑스와를 만나기 위하여 집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드디어 파리까지 간다며?”

하고 작 아저씨가 마치 자기 일이나 되는 것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내가 선물로 받은 그림을 보러 먼 데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 틀림없어. 밀레 선생님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라면서 말이야.”

정육점의 포을 아저씨도 뚱뚱한 몸을 흔들며,

“그렇고 말고.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파리까지 그림을 배우러 유학 가는 건 프랑스와가 처음이야. 그러니, 우리 마을의 명예가 아닐 수 없지.”

하고 프랑스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프랑스와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마을길을 걸어
갔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너라.”

“열심히 공부해요.”

모두 한 마디씩 하며 손을 흔들어 프랑스와를 전송
했습니다. 프랑스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두들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
습니다.





친절한 선생님

프랑스와, 즉 밀레는 마침내 프랑스의 서울인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 다섯 살 때인 1839년의 일이었습니다.

파리는 참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널따란 길을 마차들이 쉴 새 없이 오고갔습니다. 그러한 마차에는 예쁜 옷을 입은 여자와, 실크햇을 쓴 신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늘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게들은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었고, 밤에도 불이 켜 있어서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밀레의 자화상과 사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밀레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동안 지내고 보니, 밀레에게는 파리가 별로 좋은 곳이 못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밀레는 드라로슈라는 유명한 그림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J. F. Millet

대부분 밀레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골뜨기, 시골뜨기!”

하면서 밀레를 바보 취급 했습니다.

그것은 밀레의 옷차림이 늘 검소하고 시골 사투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무슨 그림을 잘 그리겠어? 보나 마나 뻔하지 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같이 모두
훌륭한 것들이
었습니다.



“야아, 이 그림은
좋은데. 이걸 누가
그린 거지?”

하고 어느 날, 드라
로슈 선생님께서 그
림 한 장을 집어 들
고 학생들을 둘러보
며 물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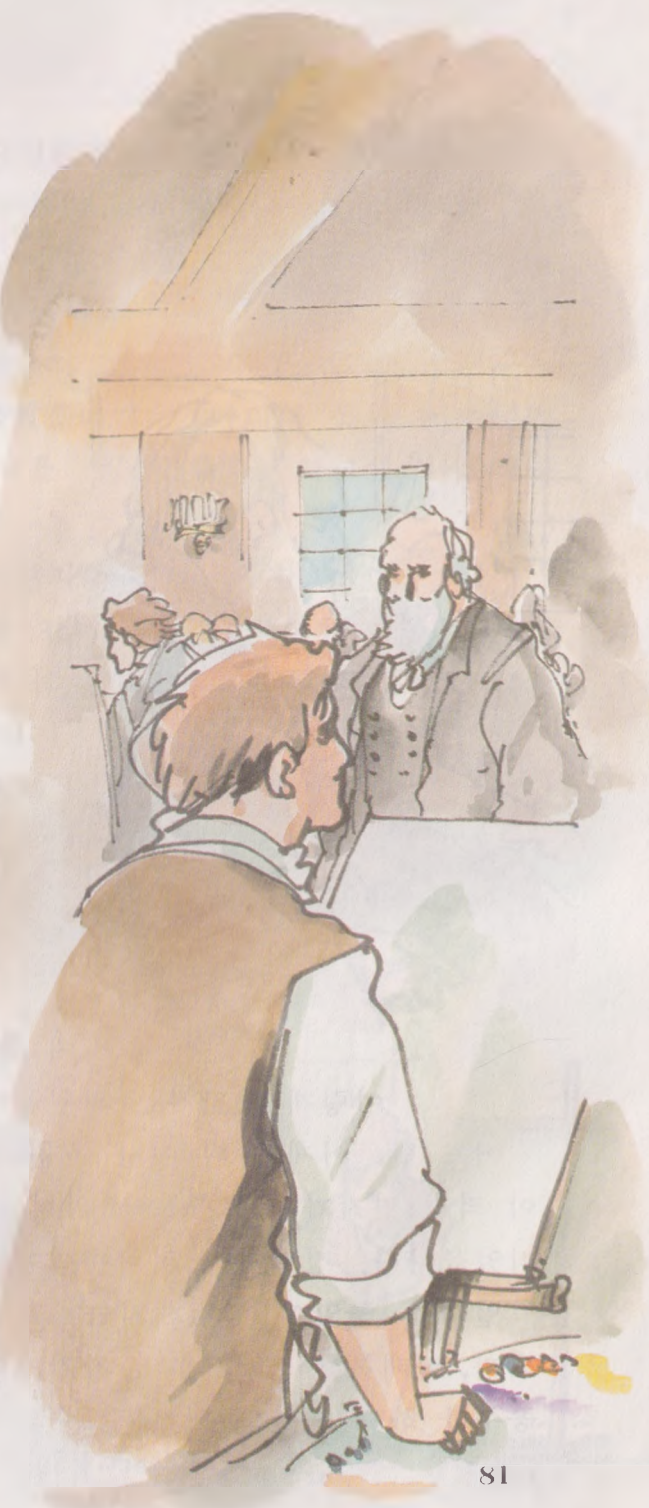
“그건 제 그림입
니다.”

밀레가 대답했읍
니다.

“음, 자네의 그림
이었군. 이 그림은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제일 잘
그린 그림이야.”

하고 선생님이 칭찬
해 주셨습니다.

밀레는 선생님의
그러한 칭찬에 아주
기뻐한 나머지, 친구
들이 노는 시간에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
읍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그림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에 나와 그림 공부를 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르부르에서는 밀레를 위해 돈을 보내 준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시장이 바뀌자 그만 그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밀레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돈

을 대 준다는 것은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가 세르부르 시의회로부터 밀레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밀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밀레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팔아서 공부를 하고 생활도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수업료를 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는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학교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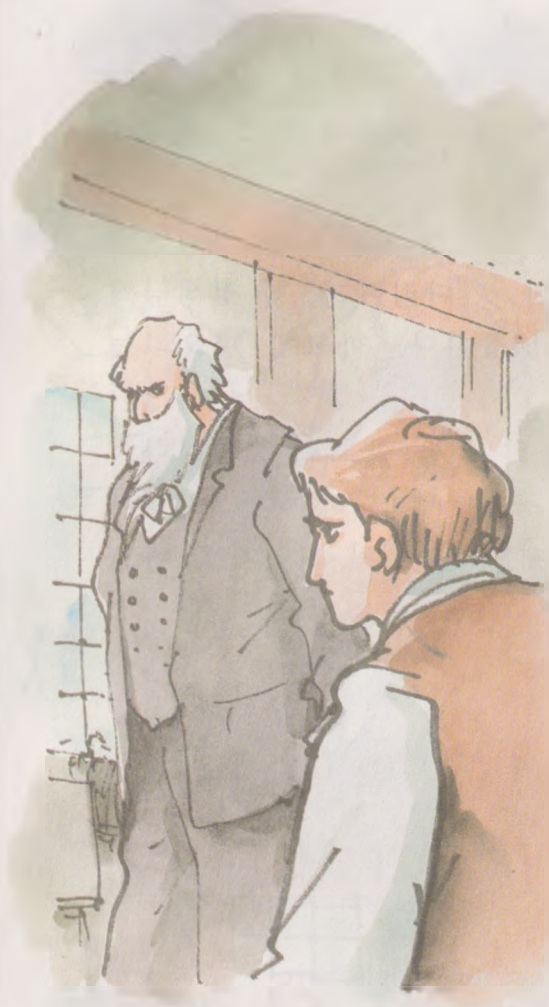
밀레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자 드라로슈 선생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선생님께서 밀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레는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곧 학교로 갔습니다.

“밀레 군, 자네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지?”

하고 선생님께서 밀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을 앓은 건 아니겠지?”

“예,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나오지 않았나?”

“선생님, 저는 도저히 수업료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밀레는 세르부르 시 의회에서 보내 주던 돈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으음,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군.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자네가 수업료

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했어 주지.”

밀레는 파리에 온 후 이렇듯 친절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자기 선생님이어서 한층 더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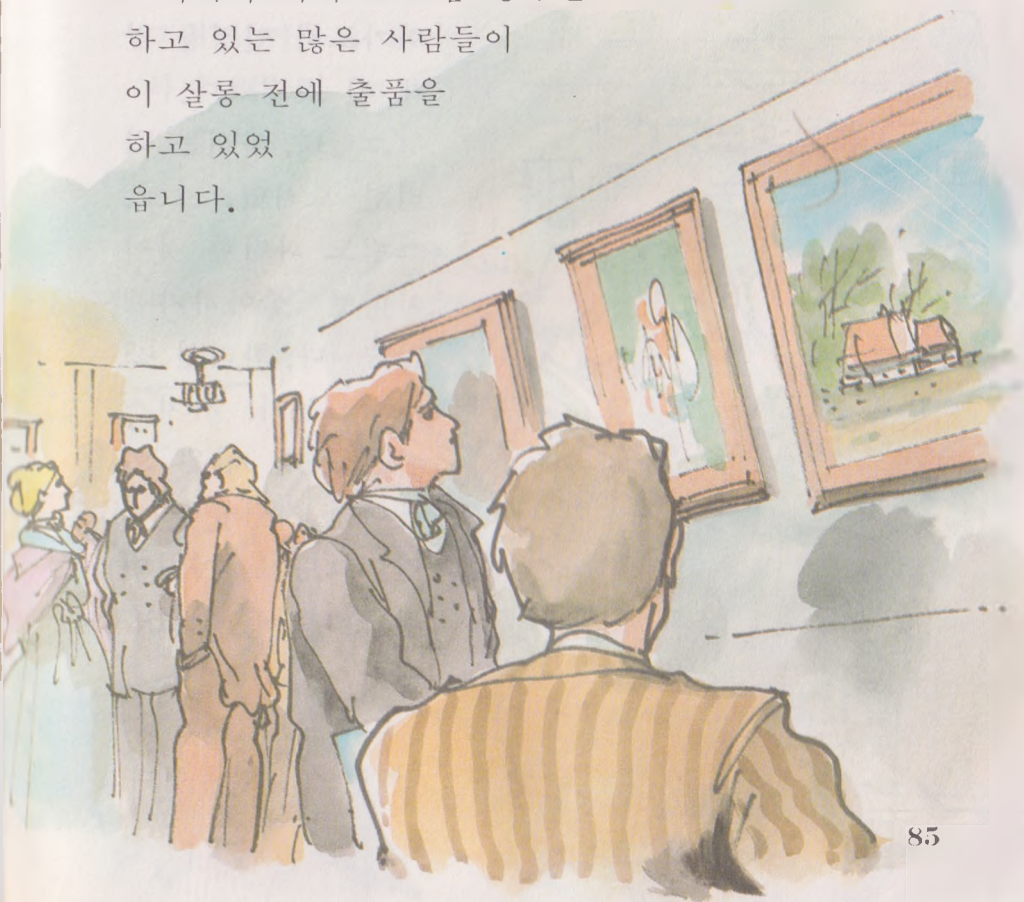
이리하여, 밀레는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고향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술 전람회가 자주 열립니다. 그 중에는 살롱 전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미술 전람회가 있는데, 이 살롱 전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러한 살롱 전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었읍니다.

화가가 되려고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살롱 전에 출품을 하고 있었읍니다.



어느 날, 밀레도
드라로슈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살롱
전에 그림들을 출품
했는데, 그의 그림들
중에서 두 점의 그
림이 뽑혀 살롱 전
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스물 여섯
살의 밀레는 드디어
화가로서 인정을 받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는 화
려한 도시였으므로,
그림도 화려한 것이
아니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화려한 생
활이라든가, 사치스
러운 옷을 입은 아
름다운 사람들을 그
린 그림이 아니면
잘 팔리지를 않았읍
니다.

그러나, 밀레는 그
런 것이 싫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로서는 왠지 그런 것이 마땅치 않았으며 몹시 싫었습니다.

“그런 그림은 그리기 싫은데.”

하고 임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시골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단 말이야.”

“자네는 시골 사람이라 그래.”

“맞았어. 난 시골 사람이라 그런 것이 좋아.”

“그렇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아무도 좋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밭에서 괭이를 들고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면 씨를 뿌리는 기운찬 사나이의 모습이라도 그럴 테야. 그런 그림이 내게는 제일 잘 어울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말대로 시골 사람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말처럼 그가 그린 그림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밀레는 생활해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다 못 한 그는 가게의 간판 따위를 그려 주면서 간신히 생활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늘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노라면,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고향에 있는 시골 사람들의 부지런한 모습과 생활이 그림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또, 에메리 누나와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밀레는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리워졌습니다.

‘아아,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정든 고향과 내가 태어난 집, 모든 것이 그림기만 하구나.’

밀레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서 그림을 많이 그려 가지고 오자!’
고향까지 가자면 상당히 오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밀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
습니다.

시골인 고향에서는 즐거운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
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떨쳐 버
리고 고향인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와가 돌아왔어.

화가인 프랑스와

가 돌아왔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후, 밀레는 고향 마을의 카트린이라는 마음씨 착한 아가씨와 가까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레는 그 아가씨와 마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아, 우리 둘이서 파리로 갑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시골 생활을 그림으로 그려요. 멀지 않아 도시의 사람들도 시골 생활이 얼마나 멋있는지 꼭 알게 될 거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당신을 따라 가겠어요. 아무리 가난한 생활이라 하더라도 저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운 생활이라도 괜찮아요. 어서어서 시골의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그리하여, 파리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시골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 주세요요.”

아내인 카트린이 이렇게 말하며 밀레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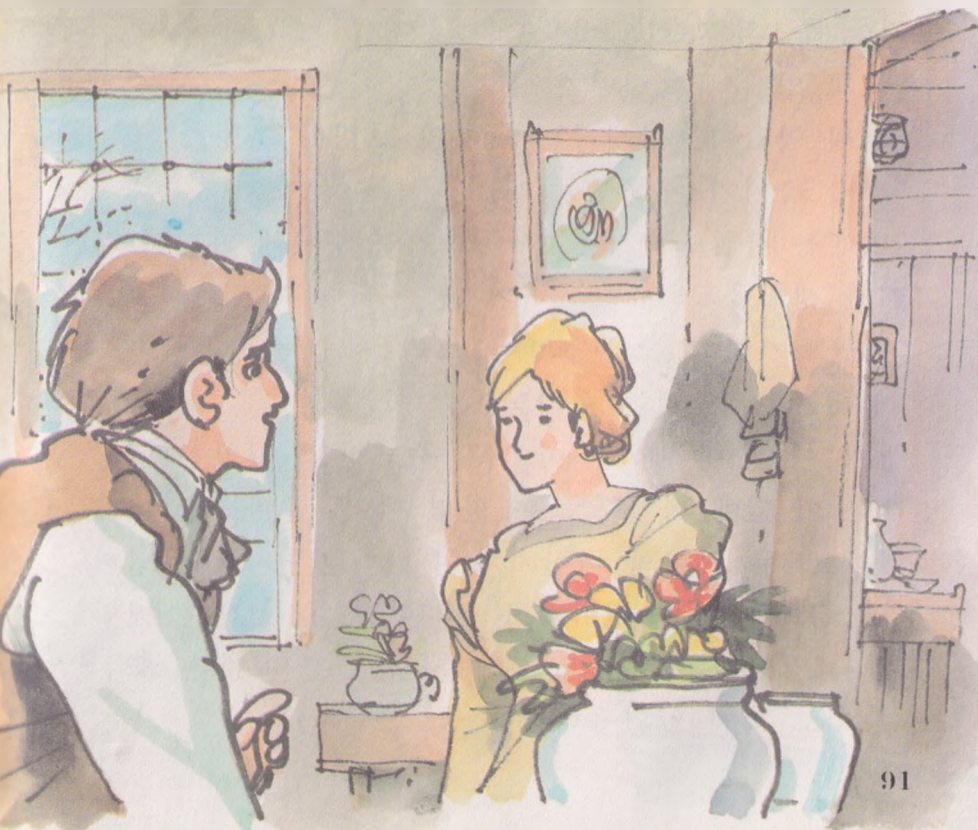
두 사람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또다시 고향을 떠나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와 카트린, 도시 사람에게 지지 않도록 기운을 내요. 계속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서 사치스럽기만 한 파리 사람들을 깨우쳐 주어요. 조용하고 착한 시골 사람들의 생활을 그들에게 알려 줘서 깨닫게 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밀레와 카트린을 찾아와 모두들 이렇게 말하며, 파리로 떠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싫어진 파리

그들은 파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밀레가 파리의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그림을 팔고 있는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 안의 유리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그림들 가운데 자기가 그린 그림도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 앞에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밀레의 그림인가?”

“그래 맞았어. 밀레라는 화가의 그림이 분명해.”

“정말 솜씨가 서툴군 그래.”

“밀레는 시골뜨기거든. 시골뜨기인 주제에 파리의 화려한 생활을 그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시골뜨기면 시골의 그림을 그리는 게 좋으련만!”

“밀레는 형편 없는 화가군.”

대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밀레는 이 말에 화가 났으나 한편 맥이 짝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밀레는 깨달았습니다. 밀레는 도시의 화려한 생활 같은 것은 조금도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의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려 봤자 아무도 그림을 사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그림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면 더러 사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대로 생활만은 겨우 꾸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카트린이 있었고, 또 어린애도 태어났으므로,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 때문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것이 생활 때문이라 해도,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이었다면 역시 그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서툴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나쁜 평을 듣는다면 그런대로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활 때문에 그린 그림이 나쁜 평을 듣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밀레는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중 나온 카트린이 밀레의 그러한 얼굴을 보고,

“왜 그래요?”

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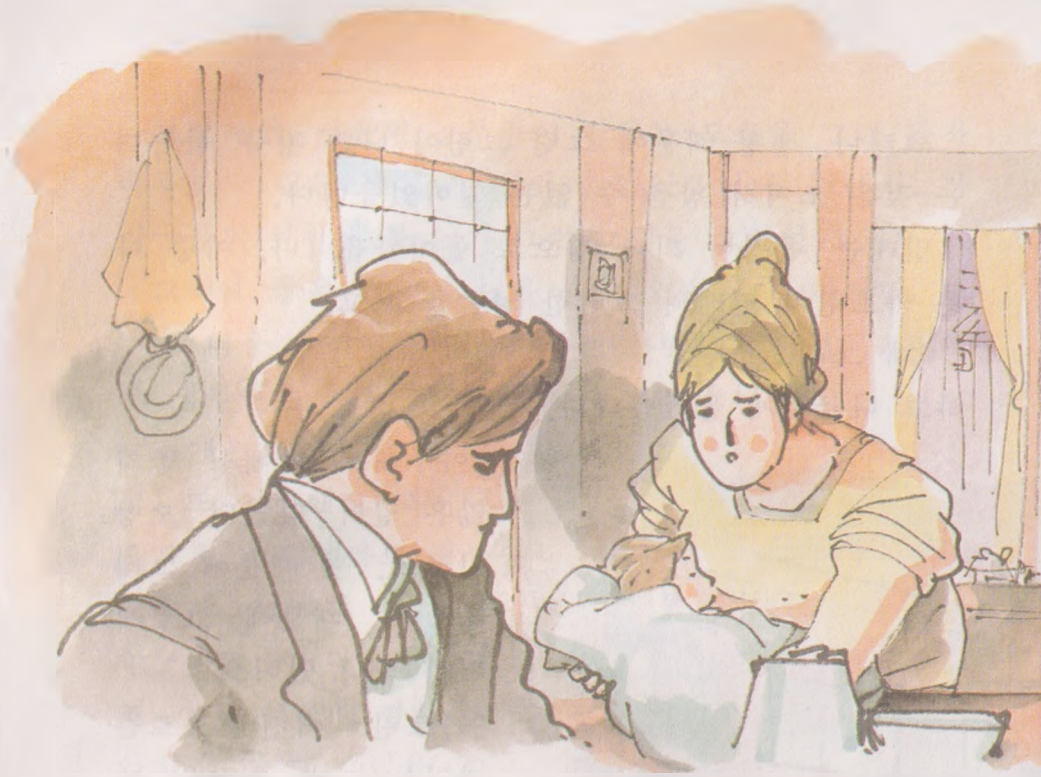
“아무래도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뭣 때문에 그래요? 뭣 때문에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카트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요. 그래 어떤 그림을 보고 나쁘게 말했나요?”

“그런데, 그것은 나 역시 제일 싫어했던 그림이지. 그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예쁜 옷을 걸치고 자랑하듯이 서 있는 파리 여자를 그린 그림이야.”





“아아, 그 그림이군요. 알겠어요. 하는 수 없이 그
린다고 하시던, 파리의 어떤 부인을 그린…….”

하고 카트린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리기 싫은 그림은 그만 그
리도록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안 그리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좋
아요. 비록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로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도록 하세요. 저도 역시 시
골 여자이니까 파리에서 살지 않아도 좋아요. 시골
사람은 시골 사람답게 농사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당신이 정 그렇게 말한다면 난 파리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시골에서 농부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겠어. 농부들의 참다운 생활을 그림으로 그리겠어. 그렇게 해도 종단 말이지, 카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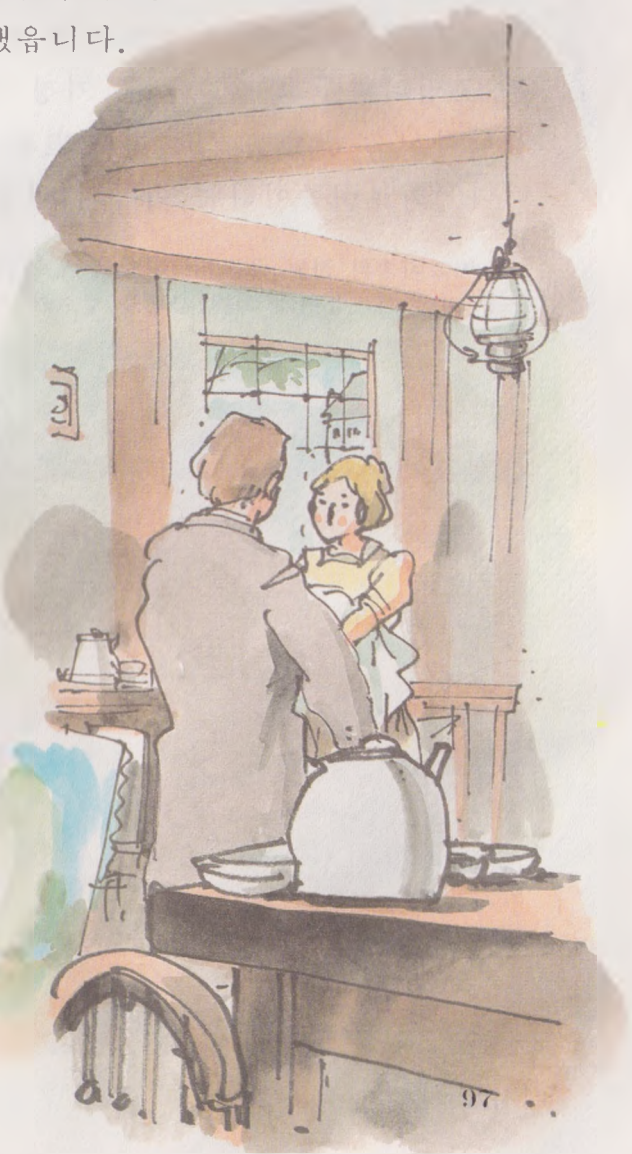
“예,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카트린이 대답했습니다.

“실은 나도 진작 부터 그런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꾸물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즉시 그런 시골을 찾아서 이사를 하도록 해요.”

밀레는 정말로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마침 파리 가까운 곳에도 농사를 짓는 그런 시골이 있었읍니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이 서로 잘 맞았읍니다.





바르비종 마을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퐁텐블로라는 숲이 있습니다. 나무가 잔뜩 우거져 파리 사람들이 곧잘 놀러 가는 곳입니다. 그 숲 한 쪽 가장자리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바르비종이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바르비종의 전원 풍경 지난날 바르비종의 전원 풍경은 바르비종 파의 화가들에게 시적 감정을 일으켜 주어 사랑을 받았다.



“카트린, 우리 바르비종으로 한번 가 보는 것이 어떨겠소? 그 곳이라면 파리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파리로 그림을 운반해 오는 것도 비교적 쉬울 테니까 말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그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 보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고 뫼텐블로 숲까지 가 보았습니다.

맑게 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숲속은 나무 그림자 때문에 어두컴컴했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그들은 숲 속을 거닐며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곳에는 작은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쉬어 갑시다.”

두 사람은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르비종 마을로 가요. 그런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니까 물어서 가기로 해요.”

카트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더니,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숲에서 빠져 나가자 무척 넓은
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조금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곳
인데.”



“마치 당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 같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 드는군. 이런 데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카트린이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모자를 쓴 사람이 잎이 우거진 떡갈나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 볼까?”



두 사람은 언덕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가까이 온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하고 밀레가 모자를 벗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에 살고 계십니까?”

“예,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벌써 1년이 되는 것 같군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땅한 집이 있으면 이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요.”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밀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요. 모두들 파리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당신만은 시골이 좋다고 그러니…….”

“아, 그것은……, 본디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누구죠?”

하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밀레라고 합니다.”

하고 밀레가 대답하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아, 당신이 밀레 씨군요. 시골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난 당신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살롱에 출품한 당신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하고 밀레가 묻자,

“나는 테오도르 루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이 루소 씨이십니까?”

이번에는 밀레가 놀랐습니다.

“저도 당신의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살롱에서 당신의 그림을 본 다음부터는 언젠가 한번쯤은 만나 뵈었으면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생활

“너무너무 멋진 바르비종이로구나!”

밀레와 카트린은 함께 바르비종 마을을 걸으면서 마을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루소는 밀레 부부가 살 만한 집을 찾아 주었습니다.



바르비종에 있는 밀레의 집 이 집은 지난날 밀레가 살던 집을 다시 재현시켜 놓은 것이다.



그 집은 어떤 농삿꾼 집의 헛간이었는데, 그 헛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쓰지 않아 몹시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밀레와 카트린은 그 헛간을 빌기로 하고는 여기 저기 부서진 부분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말끔히 치웠습니다. 그런대로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만하면 훌륭한 집이 되었지?”

“그래요. 이 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이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아이들도 곧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서 힘차게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목장도 보였습니다. 그 곳에서는 많은 양 떼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냇물도 있었습니다. 아주 정다운 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아침이면 안개 속을 뚫고 아침 해님이 동쪽 하늘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들 가족은, 그러한 해님의 찬란한 얼굴을 보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맑게 갠 하늘에 까마귀 떼가 날았습니다. 그것을 우러러보며,

“아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다.”
하면서 밀레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카트린도 가슴 위에 손을 모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껏 일할 수 있게 해주셔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하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밀레는 날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들이 계속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린 그림을
사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가족은
언제나 가난
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상세라는
밀레의 친구가 그의
그림을 파리로 가져
갔습니다. 팔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세는 밀레의 그
림을 들고 파리의
시청으로 찾아갔습
니다. 그리고는 시장
님을 만나서 사 달
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장님, 이 그림
은 제 친구가 그
린 그림입니다. 시
에서 사 주셨으면
합니다만…….”

마침 그 때, 시장
님 방으로 드라로슈
선생님이 들어왔습
니다. 밀레에게 그림
을 가르쳐 주신 선
생님일뿐더러, 밀레
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절한 선생
님입니다.



시장님은 밀레의 그림
을 들고 드라로슈 선생
님에게 보이며,

“이 그림이 어떻습니
까?”

하고 물었습니다.

“좋은 그림이라면 이
그림을 시에서 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드라로슈 선생님은 한
동안 그림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새로운
화가가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주 홀
륭한 그림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림인
가요, 선생님? 시골에
파묻혀 생활하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던데요.”

“그렇습니까? 이 정
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





다. 그 화가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상세가

“선생님, 그 그림은 프
랑스와 밀레라는 화가
가 그린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뭐, 프랑스와 밀레라
고?”

하고 드라로슈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반문하였읍
니다.

“프랑스와라하면 누구보
다도 내가 잘 알지. 그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그 때부터 그는 대단
히 좋은 그림을 그렸
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리라
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걸.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은 그 그림을 사기로 했습니다.

돈이 곧 밀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었습니다.

밀레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한층 더 좋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트린은 프랑스와가 열심히 그림 그리는 모습을 옆에서 기쁜 표정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슬픈 소식

어느 날, 우편 집배원이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카트린이 편지를 받아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여보! 어머님께서 보내신 편지예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밀레는 일론 그 편지를 받아 들고 걸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보내 주신 편지였습니다. 허둥지둥 편지를 꺼내서 읽던 밀레는 채 몇 줄도 읽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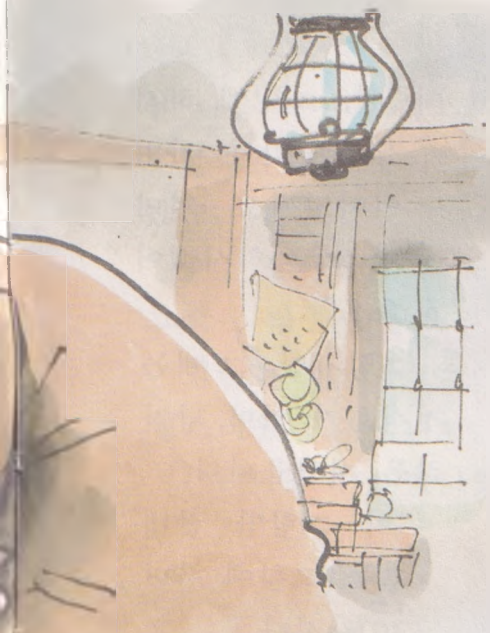
“앗!”

하고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옆에서 지켜 보고 있던 카트린이 근심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읽어 봐요. 이 편지를…….”



하고 밀레가 카트린에게 건네 준 편지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슬픈 소식을 밀레의 가족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아, 그리운 할머니. 정말 좋은 할머니였어.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어.”

밀레는 이렇게 말하며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날마다 쓸쓸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와야, 틈을 내서 한번 내려와 다오. 그래서, 할머니의 영혼을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밀레는 카트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까운 시일 안에 고향에 다녀옵시다.”



“예, 그렇게 하셔
요. 우리가 가면
어머님께서 얼마
나 좋아하시겠어
요?”

그렇지만, 그 때는
전시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그림만 끝내
고는 고향에 다니
러 갑시다.”

밀레는 전시회에
내놓을 그림을 그리
고 있는 중이었습니
다. 그래서, 어머님을
뵈러 가는 일을 얼
마 동안 뒤로 미루
지 않으면 안 되었
습니다.

얼마 뒤에 그리던
그림이 간신히 끝났
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을 파리로 운반
해 가는 일만이 남
았을 뿐입니다.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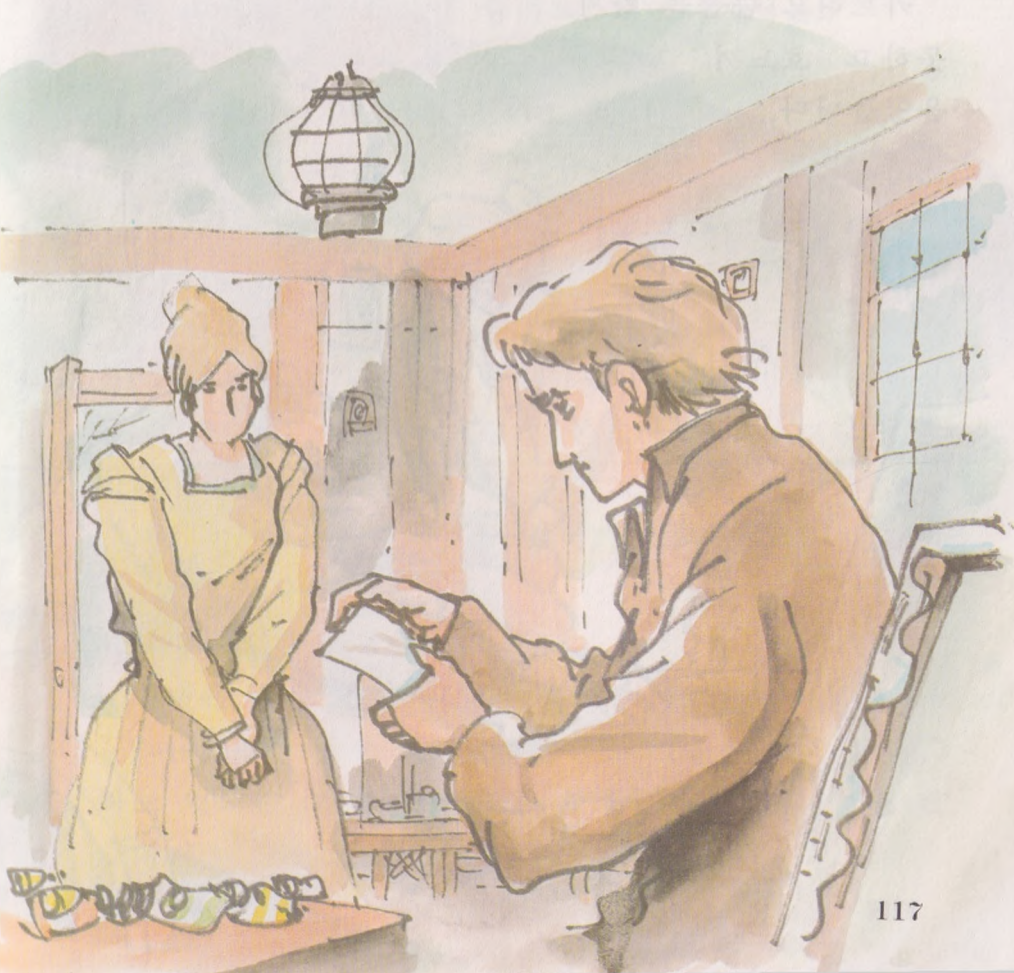
한 다음 즉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밀레와 카트린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편 집배원이 또 편지 한 통을 전해 주고 갔습니다. 그것은 남동생인 오귀스트가 써 보낸 편지였습니다.

밀레는 편지를 뜯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편지를 읽고 있는 밀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샘솟듯이 눈물이 마구 흘러 내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

밀레는 이렇게 한 마디 하고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다니!”

카트린도 슬픔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야. 왜 진작 그림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바보 천치야. 그러나, 이제는 모두 다 소용 없어졌으니…….”

밀레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밀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오귀스트의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 쪽에서 발 소리만 들려도, 어머니께서는

“혹시 프랑스와가 온 게 아니니?”

하시며 침대에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진짚상을 가지고 들어가도,

“너희 오빠는 아직 안 왔니?”

하시며 늘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니오.”

하고 대답하기가 아주 마음아팠다고 합니다. 진짚상을 가지고 갈 때마다 그렇게 물으시고, 또 그렇게 대답해야 했으니깐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밀레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밀레는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 때의 슬픔을 잊을 수가 없었어.”

하고 밀레는 그 후에도 줄곧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 사 님

그 후에 밀레는 카트린과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들고 그리운
고향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
입니다.



그 곳은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읍니다. 밭이
나 숲이나 목장 등 모두가 옛날 그대로였읍니다. 밀레
가 철없이 뛰어 놀았던 옛날 그대로였읍니다.

벼랑 위에 서게 되면 넓디넓은 파아란 바다가 보였
으며, 빨간 돛을 단 배가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었
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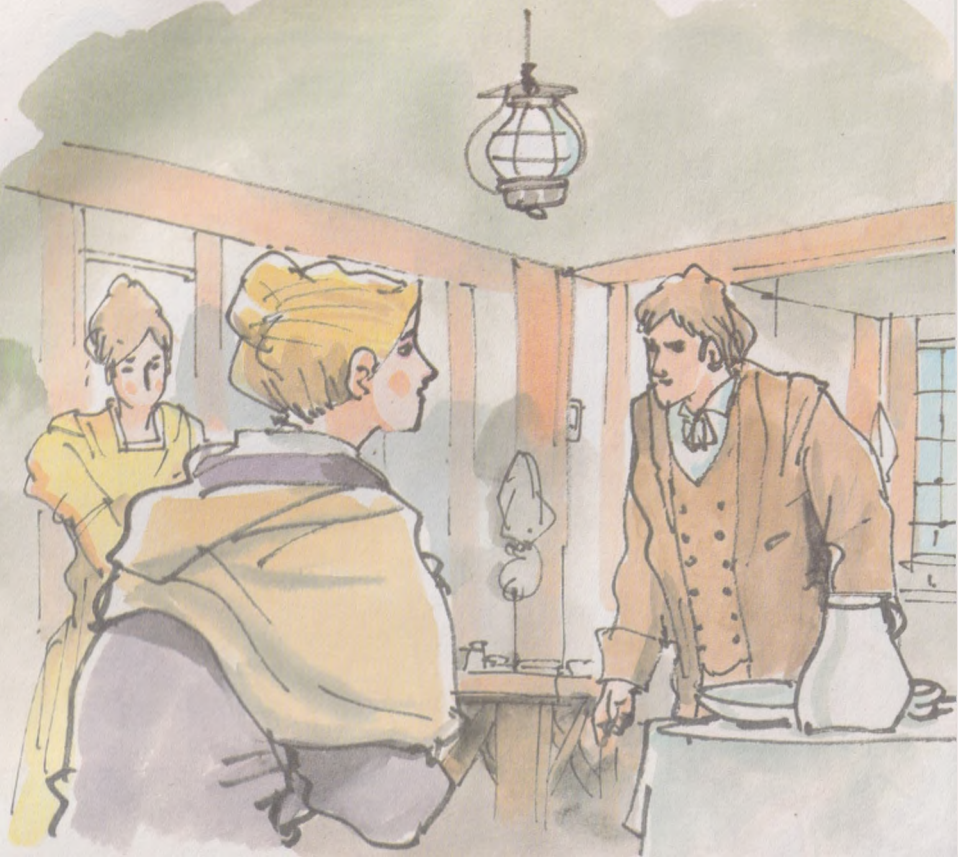


언젠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아저씨께 꾸중을
들은 일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곳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들이 어울려 물놀이를 하
고 있었읍니다.

목사로 계시던 아저씨도 오래 전에 돌아가셨읍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셨구나!’



밀레는 바다 경치를 바라보며 감격에 어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밀레가 자라난 집에는, 지금은 남동생인 오귀스트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밖의 동생들은 모두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가 있었습니다. 누나인 에메리는 같은 마을에 있는 농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밀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메리 누나가 곧 달려왔습니다.

“프랑스와, 아주 훌륭해져서 돌아왔구나!”

하고 동생을 칭찬해 주는 좋은 누나입니다.

“누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에메리 누나는 정말로 정이 많고 마음씨가 고운 여자입니다. 옛날과 똑같은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밀레의 아내인 카트린과도 곧 친해졌습니다. 카트린을 친동생처럼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밀레는 날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을의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며 열심히 그림
을 그렸습니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인 오귀스트나 가족과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장작을 쪼개기도 하였습니다. 또, 숲으로 땔감을 구하러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집안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밀레가 교회로 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
읍니다. 교회의 종
소리가 멀리 울려 퍼
지고 있었읍니다. 이
종 소리를 신호로,
농부들은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느님께 기
도를 드렸읍니다.

밀레는 교회 안으
로 들어가 혼자 기
도를 드렸읍니다. 밀
레가 기도를 다 끝
냈을 때, 나이가 많
으신 목사님이 밀레
의 뒤로 와서,

“프랑스와!”

하고 다정한 목소리
로 부르셨읍니다.

텍수염이 하얗게
난 목사님이었읍니
다. 그래서, 누군지
곧 알아볼 수가 없
었읍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다정하게 웃으시며,





“자네는 프랑스와이겠지?”

하고 다시 한 번 물으셨습니다.

“아아, 목사님은…….”

하고 밀레는 외쳤습니다.

“레브리소 목사님이시지요?”

“용케도 기억하고 있었군.”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며 밀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난 자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안아 준 적이 있다네.”

밀레의 아저씨가 이 교회의 목사로 계실 때, 레브리소 씨는 이 교회에서 일을 거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젊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넨 성경을 아주 잘 읽었던 어린이였어. 그 때의 그런 일들은 이제 모두 잊어버렸겠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고 목사님이 고마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혹시, 자네가 파리에서 사느라고 하느님을 잊어버렸는 줄 알았지.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 안심이 되는군. 나의 착한 아들이야.”

하고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밀레의 어깨를 토닥거리 주셨습니다.



즐거운 친구

고향에서 얼마 동안을 지낸 다음, 밀레는 다시 가족을 데리고 바르비종으로 갔습니다.

밀레가 바르비종으로 돌아온 날, 루소의 집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밀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었기 때

밀 레

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밀레가 그곳으로 찾아가, 루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루소는 기분이 매우 좋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여간 들어오게 나, 밀레 군. 마침 잘 돌아왔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밀레가 바르비



종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여보게들, 밀레가
돌아왔네.”

하고 다 같이 환영
했습니다.

“우리들이 시골을
그린 그림이 도시
사람들에게 겨우
인정을 받게 되었
다네. 내 그림들이
비싼 값으로 팔렸
단 말이야. 그리고,
자네의 그림도 갖
고 싶어하는 사람
이 있다네.”

하고 루소가 설명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
리 집에서 축하
잔치를 열고 있는
중일세.”

파리에 있는 화가
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골을



어느 날 저녁 무렵, 밀레는 밭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종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밀레는 걸음을 멈추고 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아! 저 종 소리!’

문득 그의 마음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맞았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녁 종 소리가 울리면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머리를 숙여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었지. 바로 그 그림을 그려야겠어.’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즉시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지 말해 보게나.”

하고 밀레가 말했습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는 그림이지 뭐.”

하고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았네. 그런데, 어떤 기분이 드나?”

“멀리서 울리는 종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오는 것 같군.”

“아 그래? 그렇게 느껴진다면 고마운 일일세. 나는 종 소리가 울리는 것을 그린 것일세.”

이렇게 말하는 밀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밀레는 이 그림에 《저녁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859년에 그린 작품으로, 그의 나이 마흔 다섯 살 때였습니다.

《저녁종》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농군이 그린 그림

밀레와 카트린은 무척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살아 오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모두 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은 언제나 떠들썩했으며 북적거렸습니다.

장남의 이름도 역시 프랑스와라고 했습니다. 아빠인 프랑스와와 같은 이름이었으므로, 아들 쪽은 <작은 프랑스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은 프랑스와도 어른이 되어서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시골 생활을 좋아해서 농부들이나 그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큰딸의 이름은 마리라고 했습니다. 상냥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며 부지런히 일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째 딸도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루이즈라고 불렀는데, 파리 가까이에 사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루이즈는 자주 바르비종에 왔으므로, 어린 동생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인 카트린은 계속 일만 해 왔으므로 요즈음에 와서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둘째 딸인 루이즈가 자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는

“자아,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하고 누워 계신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루이즈.”

어머니는 루이즈가 이렇게 친절히 돌보아 주자 눈물을 흘리며 고마와하셨습니다.

밀레는 계속 건강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마을의 화가들을 불러, 새 그림이 어떤지 봐 달라고 했습니다.

루소는 언제나 밀레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자네 그림은 모두 훌륭해.”

하며 그 때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파리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루소는 파리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이따금 파리에 나갔다가는 그대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있을 때면 언제나 밀레의 그림을 파리 사람들에게 보이며,

“이 그림 어떻습니까? 밀레라는 훌륭한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잘 그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일하는 농부들이 온통 흙에 묻혀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흙냄새와 발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농부들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파리의 귀부인들은, 루소의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시골이란 참으로 좋은 곳이군요.”

하며 루소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어 밀레의 그림은 점점 파리에서도 유명해졌으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밀레의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 것이지요.

그전에는 밀레의 그림 하면,

“아주 좋다.”

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림.”

하고 언짢게 이야기했으므로, 밀레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그림을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

1867년의 일입니다. 파리에서 대규모의 박람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출품하는 대대적인 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밀레에게도,

“박람회에 그림을 출품해 주십시오.”라는 안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린 것 중 특히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8점을 출품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삭줍기》와 《저녁종》도 들어 있었습니다.

루소는 정부의 부탁으로 박람회에서





착하거든 곧 사서
입으셔요. 돈은 제가
마련하여 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밀레
는 파리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빠, 돌아오실 때
제 선물 꼭 사 오셔
요!”

하고 이본이 말했습니
다. 이본은 아직도 어
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본이 밀레의 허리를
잡고 매달리며 졸랐습
니다.

밀레는 그러한 이본
을 안아 주며,

“그래 그래. 꼭 사다 주마. 아마 돌아올 때는 듬뿍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장난감도 인형도, 또 책
도 사다 주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밀레는 신이 나서 떠났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밀레는 곧바로 루소를 찾아갔습니다.
루소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간 것이지요.



1 등 상

“밀레의 그림이 제일 좋아. 1 등상은 프랑스와 밀레에게 주기로 합시다.”

“나도 찬성어요.”

박람회 임원들이 모여 누구의 그림을 1 등상으로 결정하느냐를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 급 화가들이 출품한 많은 그림들이 있었으므로, 서로의 의견이 구구했습니다.

밀레의 아틀리에 내부





맨 마지막에 루소가 일어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와 밀레 씨에게 1 등상을 줄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프랑스의 그 누구도 그리지 못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지탱해 나가는 것은 시골의 저 농부들이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오직 참되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토록 아름답고, 올바르게 그린 화가는 밀레 씨 이외에는 없습니다. 프랑스와 밀레 씨는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밀레 씨에게 1 등상을 주는 데 모두 찬성해 주십시오.”

다른 임원들도 루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밀레에게 1등상이 주어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신문이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밀레를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축하를 보내 주었습니다.

밀레는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빨리 시골로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싫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치스러운 모든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싱싱한 풀냄새와 코를 물썬 자국
하는 흙냄새가 더 좋았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하고 마치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
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초대를 받아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이 밀레에게는 모두 귀찮게 생각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것도 귀찮기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밀레는 언제나,

“시골에 가서 가난한 농부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을 그리는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영광

밀레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골에 묻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무렵, 루소는 병이 들어 몸져 누게 되었습니다. 루소는 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밀레가 의사를 모셔 왔습니다.



의사는 루소가 중병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밀레는 카트린과 함께 매일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밀레와 카트린의 정성어린 간호도 보람 없이,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루소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느 날, 목장 앞에서 밀레가 스케치를 할 때였습니다. 밀레의 옆으로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갔습니다.

“아, 아저씨!”

하고 밀레가 먼저 불렀습니다. 낮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불러 놓고 보니, 누군지 얼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넨 프랑스와가 아닌가?”

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군. 난 대장간의 작이라네. 이제 알겠나?”

“예, 아저씨. 죄송합니다. 많이 달라져서서…….”

“난 자네의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





밀레를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그뤼쉬에 세워 놓은 기념상

고 있다네. 그래서, 자네가 오기를 기다렸지. 그 그림을 돌려 주려고 말이야.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거든.”

작 아저씨가 밀레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와 했던 옛 약속을 돌려 주셨습니다.

그 그림은 아직도 대장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들어 있는 액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뤼쉬에 태어난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
밀레가 16세 때.

대장장이 작 적음.」

“아저씨, 여러 가지로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그 때 아버지에게 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밀레가 감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야말로 우리 마을의 명예이고 프랑스의 영광인데, 내가 감사해야지.”

작 아저씨가 밀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밀레는 1875년에 그만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예순 한 살 때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 사람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의 그림은 모두 훌륭했는데…….”

라고 말하며, 온 세계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저녁 중 소리 속의 참다운 사랑

이 원 용

〈전기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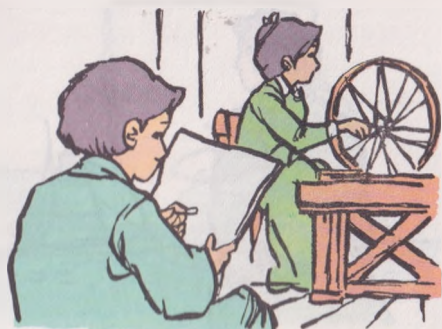
밀레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은, 그림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줍니다. 《저녁중》이라든가 《이삭줍기》 같은 그림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의 대표작들인데, 이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뭔가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때마다 어떤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그림들은 일반 대중과 가장 친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농민 속에서 살다가 간 농민 화가답게 가난한 시골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밭일을 하며 자랐고, 일생 동안 농촌을 사랑하여 흙과 밀착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그뤼쉬는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목장이 있고, 맑은 냇물이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며, 바다가 보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뤼쉬의 경치는 그의 예술적 감각을 한층 더 불러일으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듯이, 밭일을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멀리서 들려 오는 교회의 종 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라든가, 미술 공부



를 하러 파리로 떠나는 밀레에게 할머니가 부탁하는 장면으로도 알 수 있지만, 두터운 신앙심으로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마음씨 착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종교적 분위기가 그의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결실을 수확하고 기도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경건하고 신성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는 그래서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작품에 재현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그림은 꾸밈이 없습니다. 달콤하거나, 안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밀레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영원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도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아니, 싫어하다 못 해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잘 파리에서 시골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자신에 대한 칭찬까지 귀찮아했던 밀레는, 결국 농촌에서 살며 농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다가 농촌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들뜬 도시 생활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실과 인내와 사랑으로 일관된 신앙적인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귀족 시대가 끝나고 시민 시대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렸지만 **그만**은 농촌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리고는, 버려진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팔리지를 **않**았고, 그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잊혀진 농민들의 생활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참다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용기가 **없**어도 안 되며 인내심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 내어 **진실**을 찾아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밀레는 신념과 사상을 지닌 화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과 사상 없이는 밀레와 같은 일생과 예술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지를 집안으로 맞아들여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먼저 따근한 음식을 대접하던 할머니의 **진실**한 사랑!

밀레는 아마도 그러한 가정적 분위기에서 참다운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밀레의 생애와 예술에 있어서도 할머니의 생활과 비슷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밀레의 가족들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부족한 생활 속에서도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역시 가난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생활 환경 덕분으로, 그는 《이삭줍기》《씨뿌리는 사람》《저녁중》과 같은 불멸의 명화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대하고 있으면 저절로 진실함을 느끼며, 또 어딘지 모르게 착하고 경건함을 느끼게 되고, 훈훈하고 참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밀레의 생애를 읽고, 그가 겪었던 어려운 생활들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기면서 농촌에 대한 그의 사랑과 진실을 느껴야 하겠으며, 인간과 생활에 대한 참을성 있는 진실과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밀레가 간 지 이미 100년이 넘었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여전히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밀레, 그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던져 주면서 말입니다.



밀레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뤼쉬의 고향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산도 그대로였고, 냇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자들이 어른이 되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고향 사람들도 밀레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인 오귀스트만은 형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오귀스트는 그 곳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느 날, 목장 앞에서 밀레가 스케치를 할 때였습니다. 밀레의 옆으로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갔습니다.

“아, 아저씨!”

하고 밀레가 먼저 불렀습니다. 낮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불러 놓고 보니, 누군지 알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넨 프랑스와가 아닌가?”

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른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군. 난 대장간의 작이라네. 이제 알겠나?”

“예, 아저씨. 죄송합니다. 많이 달라져서서…….”

“난 자네의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



연 표

연대	나이	밀레의 생애와 업적	
1814		10월 4 일, 프랑스 세르부르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의 기독교 가정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남.	
1832	18	세르부르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무셰르 선생으로부터 그림을 배움.	
1833	19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향에 돌아왔으나 할머니의 권유로 다시 세르부르로 돌아가 랑그르와 선생 밑에서 그림 공부 시작.	
1837	23	랑그르와 선생의 추천으로 세르부르 시로부터 파리에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됨.	
1840	26	살롱에 《초상화》가 입선.	
1841	27	포린과 결혼한 뒤, 파리의 작은 아틀리에에서 가난과 싸우며 그림에 열중.	
1844	30	아내 포린이 사망. 세르부르로 돌아옴.	
1845	31	카트린과 재혼.	
1847	33	이 때부터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	

연대	나이	밀레의 생애와 업적	
1848	34	관절 류우머티즘에 걸려 고생. 《키질하는 사람》 이후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시작.	
1849	35	6월, 바르비종을 방문하고 그 곳에 매혹되어 온 가족과 함께 바르비종으로 이사함.	
1850	36	《씨뿌리는 사람》 《건초를 묶는 사람》을 살롱에 출품.	
1851	37	할머니 사망. 화가 루소와 친해짐.	
1853	39	《수확하는 사람들의 휴식》 《양털을 깎는 여인》 《양치기》 등의 작품을 출품, 그 중 2점이 팔림.	
1854	40	친구 루소의 주선으로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는 여인》 외에 여러 점의 작품이 팔림.	
1855	41	《꺾꽂이 하는 남자》를 만국 박람회에 출품.	
1857	43	《이삭줍기》를 완성하여 출품했으나, 인정받지 못함.	
1858	44	《장작을 나르는 사람들》을 그림.	

연대	나이	밀레의 생애와 업적	
1859	45	《저녁중》 《암소에게 풀을 주는 여인》 《사신과 나뭇군》 등의 작품을 출품.	
1860	46	《양털 깎기》 《통을 나르는 여인》 《기다림》 《수우프를 마시는 여인》 《양육》 등의 작품을 그림.	
1862	48	《괘이를 든 남자》 《감자를 심는 사람들》 《풀 먹는 양》 《수사슴》 등의 작품을 다음 해의 살롱에 출품.	
1867	53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 8점의 작품을 출품. 그 가운데에서 《겨울》이라는 작품이 1등상을 받음으로써 밀레의 이름은 갑자기 유명해짐.	
1868	54	정부로부터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음.	
1870	56	살롱의 심사 위원이 됨.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감.	
1871	57	바르비종으로 감.	
1874	60	《봄》을 완성. 건강 나빠짐.	
1875	61	1월 20일에 사망. 샤흐의 교회에 묻힘.	

학습 인명 사전

감 수 / 심 경석 (아동문학가 · 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무수〉 김 종상 (아동문학가 · 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 (아동문학가 · 서울 선일국민학교 교감)
 김 일환 (아동문학가 · 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 (아동문학가 · 서울 사대부속국민학교 교사)

● 브라크	162
● 브루투스	164
● 비스마르크	166
● 비 제	171
● 빅토리아 여왕	173
● 사르트르	177
● 사마 천	181
● 석가모니	184
● 세네카	189
● 세르반테스	191
● 세 잔	195
● 셰익스피어	201

※ 이 인명 사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인명을 중심으로 해서 엮었습니다. 본 전집의 본문에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각 인물의 연대별 사실과 나이의 관계는 만(滿)으로 셈하여 통일하고, 특히 생물 연대 등에 대해서, 세계 인명은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을, 한국 인명은 《국어 대사전》(이 회승 편)을 따랐음을 밝혀 둡니다.



브 라 크 (1882~1963)

입체파를 창시한 화가

조르즈 브라크는 프랑스의 화가로서, 피카소와 함께 현대 미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입체파를 창시했다. 나중에는 독창적인 표현 세계를 개척하여, 조화와 역제의 미를 잘 나타냈다.

브라크는 1882년 5월 13일, 프랑스의 아르장퇴이유에서

〈만돌린을 든 여인〉



조그만 실내 장식업을 하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브라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접할 수 있었다.

브라크의 집안은 1890년에 르아브르라는 항구 도시로 옮겼는데, 그 곳 노르망디 해안의 풍경은 어린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899년, 그는 르아

브르 시립 미술 학교에 입학하여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1900년, 파리로 나온 브라크는 1906년까지 당시 젊은 화가들에 의하여 추진되던 야수파 운동에 참가하였다. 1902년에서 2년 동안은 아카데미 앙베르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하였다.

브라크의 야수파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 성공한 작품도 별로 없었고, 본격적인 야수파 연구도 하기 전에 세잔의 그림에 끌리기 시작했다. 1908년의 《레스타크의 집들》에는 세잔의 영향이 뚜렷이 보인다.

1907년, 브라크는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당시의 미술계에 하나의 혁명처럼 평가되는 입체파 운동을 벌여,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입체파 그림에서는 앞의 장면이나 뒤의 장면, 심지어 물체 상호간의 구별도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인물이나 물체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진 것처럼 표현된다. 이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걸작이 브라크의 《기타아를 든 남자》(1911년)이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출전하여 부상을 입었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1917년에 다시 피카소와 만났으나, 두 사람은 이제 제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1924년의 《기타아와 괴물이 있는 정물》, 1925년의 《나부(裸婦)》, 1937년의 《만돌린을 든 여인》 등이 유명하다. 그는 또 1952년에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루브르 박물관의 천장 장식을 하기도 했다.

20세기 화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브라크는 1963년 8월 31일, 파리에서 보람찬 생애를 마쳤다.

브루투스 (기원전 85~기원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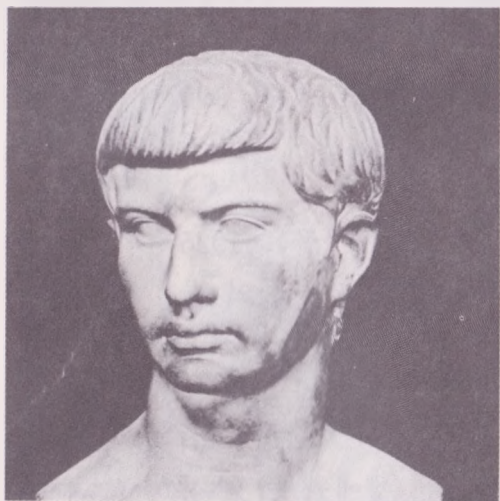
고대 로마의 공화주의자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로마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이저》에는 이상적인 성격의 훌륭한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브루투스는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열렬히 숭배했고, 철학 논문이나 역사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 키케로와 주고받았던 편지는 명문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더없이 지성적이었으며 이상주의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융통성이 없고 고립적이었으며, 독선적인 면도 있었다.

브루투스



기원전 49년, 케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브루투스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다. 폼페이우스는 30여 년 전에 브루투스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지만, 브루투스는 케사르의 강력한 반대자인 카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브루투스는 마침내 폼페이우스의 편에 가담하여 케사르와 싸웠다. 그러나, 이 전쟁은 케사르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케사르는 브루투스를 용서하고 지방 총독으로 등용하였다.

46년, 케사르를 반대하던 카토가 자살하자, 브루투스의 케사르에 대한 충성도 점차 식어 갔다. 브루투스는 고아가 된 카토의 딸 포르치아와 결혼했다.

그 즈음, 케사르의 권력은 날로 증대하여 독재 정치로 흐르고 있었다. 이에 로마의 공화정을 걱정한 사람들이, 브루투스의 조상인 루시우스 브루투스가 로마의 왕을 죽이고 공화정을 세웠던 사실을 자꾸 일깨워 주면서, 브루투스에게 카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케사르 암살 음모에 가담할 것을 권했다.

마침내 브루투스는 케사르 암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카시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케사르 한 명만 죽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케사르라는 독재자 하나만 없애면 공화정이 부활되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기원전 44년에 케사르는 암살당했고, 기원전 43년부터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등에 의한 제2회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케사르의 원수를 갚기로 결의했다.

브루투스는 카시우스와 군대를 모아 이들과 대항했다. 기원전 42년 10월,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는 승리했으나, 카시우스는 패배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결국 브루투스도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으며, 카시우스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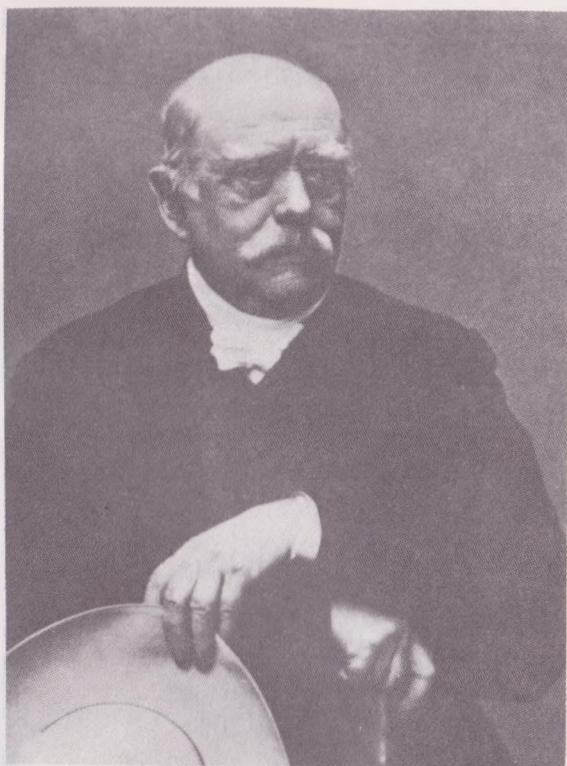


비스마르크 (1815~1898)

도이칠란트의 근대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엘베 강 하류 부근의 쉰하우젠에서 1815년 4월 1일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방 귀족으로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7세 때 베를린의 국민 학교에 들어가 엄격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
그의 소원은 도이칠란
트의 통일이었다.



1878년 베를린 회의 가운데 서서 악수하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이다.

교육을 받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17세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괴팅겐 대학 법학부에 들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개구장이였던 비스마르크는 불량 학생의 두목이 되어 공부는 게을리하고 놀기만 했다. 그러나, 1년 반쯤 지나 그런 짓도 쓸데없음을 깨닫고, 이번에는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열중했다.

그 무렵, 도이칠란트는 많은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쪽이 중심이 되어 도이칠란트를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1835년에 대학을 졸업한 비스마르크는 공무원이 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싫증을 느끼고 쾰하우젠 영지에 틀어박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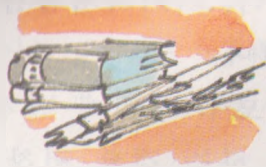
은둔 생활을 했다.

이 한가한 시간을 비스마르크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철학이며 종교 관계의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의 큰 밑천이 되었다. 1847년에는 지방 의회의 의원에 선출되어, 보수주의 정계의 대표로 발돋움했다.

당시의 도이칠란트에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가 팽배했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었다. 1848년, 프로이센에서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는 혁명이 일어났다. 그 여파가 도이칠란트 곳곳으로 퍼져 나갔으나, 곧 진압되고 말았다.

비스마르크는 1848년의 2월 혁명 때는 왕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1859년에 러시아 공사가 되어 3년 동안





프랑스의 영광

밀레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골에 묻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무렵, 루소는 병이 들어 몸져 누게 되었습니다. 루소는 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밀레가 의사를 모셔 왔습니다.



의사는 루소가 중병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밀레는 카트린과 함께 매일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밀레와 카트린의 정성어린 간호도 보람 없이,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루소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밀레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뤼쉬의 고향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산도 그대로였고, 냇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자 들이 어른이 되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고향 사람들도 밀레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인 오귀스트만은 형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오귀스트는 그 곳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재임했고, 그 후에는 프랑스 공사로서 활약했다. 그러는 동안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여 도이칠란트를 통일하려고 하는 기운이 더 한층 강해졌다. 산업 자본가들도 도이칠란트가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비스마르크는 그 힘을 이용하려고 했다.

1862년, 선왕이 사망하고 빌헬름 1세가 즉위하자, 왕과 의회는 팽팽히 대립했다. 게다가, 선왕은 국방상인 알브레히트 폰 루운을 시켜 군비 확장을 명하고, 이에 따른 세금의 증수를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인사들이 지배하고 있던 의회에서 이 안은 즉각 부결되어 좌절되고 말았다.

같은 해, 국방상 루운은 이 문제를 비스마르크에게 맡길 것을 빌헬름 1세에게 요청했다. 파리에 주재하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곧 소환되어, 9월 23일 수상 겸 국방상으로 취임하였다. 평소 프로이센 중심으로 도이칠란트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또다시 이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 때 그는,

“도이칠란트의 통일은 연설이나 다수결로써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철과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여기서 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기를 가리키며, 피는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군비의 확장만이 도이칠란트를 통일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철혈 재상(鐵血宰相)>이라 불리게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의 아우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이칠란트 최대의 지방인 실레스비히와 홀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하여 1863년 12월, 덴마크로 진격했다. 덴마크 군대는 잘 훈련된 프로이센 군대를 당해 내지 못하고 반 년 만에 항복했다. 이제 오스트리아만이 남았다.

비스마르크는 1866년, 오스트리아로 진격했다. 당황한 오스트리아는 의회에 동맹국의 규합을 호소했으나, 프로이센은 7주 만에 전쟁을 끝내 버리고 말았다. 4년여에 걸친 전쟁은 일단 종식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도이칠란트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1870년에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보·불 전쟁)이 시작되어,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를 사로잡고 프랑스를 항복시켰다.

1871년 1월,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도이칠란트의 여러 나라가 모여 새로운 도이칠란트 제국을 만들고,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가 도이칠란트의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 도이칠란트가 탄생하고, 오랜 동안 품고 있던 비스마르크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외교에 능숙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뒤져 있는 도이칠란트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썼다. 그러나, 나라 안의 민주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은 탄압했다.

1888년에 빌헬름 2세가 즉위하자, 비스마르크는 새로운 왕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직을 하고, 《회상록》 등을 쓰면서 조용히 지내다가,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조르즈 비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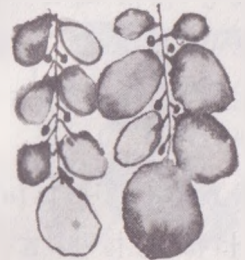
음악원에서 그는 천재적인 학생으로 유명했다. 음으로든 프로망탄 알레비, 샤를 구노 등이 있었다. 파리 1848년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공부했다. 당시 그의 스승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10세 때인 비제는 1838년 10월 25일, 프랑스 파리에 태어났다. 제를 주를잡았다.

조르즈 비제는 프랑스의 작곡가로서 특히 가극에 뛰어 나, 등장 인물의 정확한 성격 표현과 매력 있는 선율로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수법으로 프랑스 가극

천재적인 가극 작곡가

제] (1838~1875)

비]



1857년, 비제는 로마 대상을 받고 로마로 유학을 갔다. 그 곳에서의 3년간은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다. 가극 《돈 프로코피오》를 작곡한 것도 이 때였다.

1860년에 파리로 돌아온 비제는 가극 작곡가로서, 피아니스트로서, 또 개인 교수도 하면서 지냈다. 출판사를 위하여 편곡을 하는 일도 계속했다. 1869년, 그는 파리 음악원에서의 스승 알레비의 딸 쥘비에브 알레비와 결혼했다.

비제의 명성은 주로 가극 작곡에 있지만, 기악곡도 걸작이 많다. 1855년에 작곡한 《다 장조의 교향곡》은 모짜르트, 멘델스존, 슈베르트의 작품과 겨룰 만한 걸작이다.

이 밖에도 1871년에 작곡한 피아노 연탄곡 《어린이들의 놀이》, 1874년의 서곡 《조국》, 1872년의 조곡 《아를의 여인》 등은 유명하다.

1860년대의 그의 가극은 별로 성공한 것이 없지만, 1870년대는 비제의 전성기였다. 1872년에 가극 《자밀레》, 1875년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카르멘》을 발표했다. 《카르멘》은 1875년 3월 3일에 상연되었는데, 비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카르멘》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메리메의 소설을 가극으로 작곡한 것인데, 인간의 진실과 정열과 개성이 비제의 풍부한 선율과 색채로 간결하게 묘사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1875년 5월, 비제는 건강이 악화되어 파리를 떠나 요양을 갔는데, 결국 6월 3일에 아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진보적인 음악 사상가였고, 관현악에 있어서의 색채 감각의 우수함이 그의 완벽한 기술과 조화되어, 그 독창적인 선율은 따를 사람이 없었다.



빅토리아 여왕 (1819~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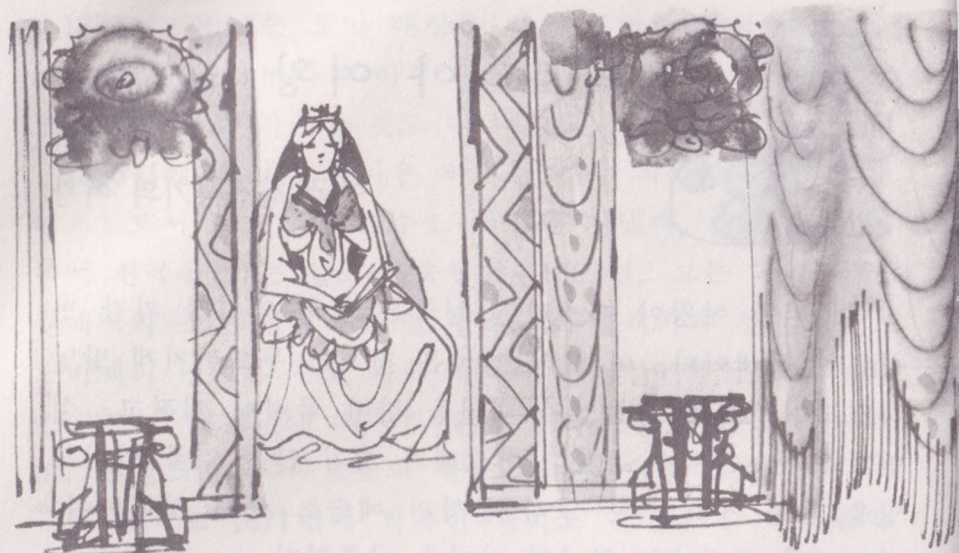
영국 최전성기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은 영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대이다. 이 때의 영국은 정치가 두드러지게 발달하였으며, 세계 상공업의 패권을 잡아 국력이 커졌고, 식민지는 온 세계에 걸쳐 있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또한 문학과 예술도 크게 성행하여, 빅토리아 시대라는 하나의 시기를 이루었다.

빅토리아는 1819년 5월 24일, 런던의 켄싱턴에서 조오



젊은 시절의 빅토리아 여왕



지 3세의 손녀로 태어났다. 11세 때 영국 왕위 계승자로
지명되었고, 윌리엄 4세가 죽자 1837년에 18세의 나이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빅토리아 여왕은 언젠가,

“나는 여왕으로서는 너무 키가 작다.”

고 말했는데, 정말 여왕은 키가 작았다. 그러나, 여왕의 용
모는 아주 뛰어났으며, 평생 우아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맑고 흰 피부, 푸르고 커다란 눈, 오똑 솟은 코, 담
갈색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진 여왕은 나이가 들면서 살
이 찼는데, 그래서 더욱 여왕다운 풍모를 보여 주었다.

빅토리아 여왕은 밖으로는 대영 제국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해외 식민지 개척에 힘쓰고, 안으로는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따라 산업 혁명을 일으켜 세계 제1의 공업 국가를 만들었고, 세계 시장을 독점하여 영국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여왕의 어머니와 아저씨는 작센 — 코부르크 — 고타 집안의 앨버트 공(公)을 오랫동안 여왕의 남편감으로 생각해왔다. 미남인 앨버트 공은 여왕을 당장 사로잡았고, 1839년 10월 15일에 여왕은 그에게 결혼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1840년 2월 10일에 결혼했으며, 결혼 생활은 아주 이상적이고 행복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나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았다. 1861년에 여왕의 어머니가 사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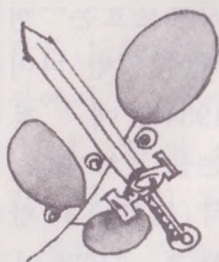


즉위 60주년 축전 빅토리아 여왕이 런던 시가를 행진하고 있다.

고,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 12월에는 남편 앨버트 공마저 장티푸스로 죽고 말았다. 여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 후 여왕은 거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1887년에는 여왕 즉위 50주년 기념 축전이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10년 후에는 다시 60주년 축전이 거행되어 대영제국의 영광을 자랑하였다.

63년 동안 왕좌에서 영국을 지배하던 여왕은 1901년 1월 22일에 눈을 감았다. 이 때 아들이 넷, 딸이 다섯, 손자가 40명, 증손자가 37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사르트르 (1905~1980)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창시자

장 폴 사르트르는 카뮈와 함께 실존주의 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프랑스의 작가요 철학자이다.

사르트르는 1905년 6월 21일, 파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해군 기술 장교였으나 사르트르가 두 살 때 사망했으므로, 그는 도이칠란트 어 학원을 경영하고 있던 외할아버지 카알 시바이찌 밑에서 성장했다. 유명한 알베르트 시바이찌는 그의 어머니의 사촌 오빠이다.

어머니는 그가 11세 때 라로셀의 조선소장과 재혼했기 때문에 그도 파리를 떠나 라로셀로 갔다. 16세 때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한 그는 1925년에 수재들만 들어가는 고등 사범 학교에 입학했다. 철학을 전공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1929년에 철학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재학중 무니에, 아롱 등의 수재와 알게 됐으며, 니장과는 특히 친해서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나중에 생애의 반려자가 된 보브와르를 만나게 된 것도 이 때였다.

대학 졸업 후 병역을 마치고 북 프랑스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 있는 고등 학교에 철학 교사로 부임했는데, 이 도시는 뒤에 《구토》에 묘사한 부우빌이라는 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1933년에 베를린에 1년간 유학하여 도이칠란트 철학, 특히 후서틀과 하이데거의 철학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사르트르와 보브와르

사르트르는 현상학에 쏠린 나머지 1934년에 철학 논문 《자아의 초극(超克)》을 발표했고, 1936년에는 《상상력》을 발표했다.

1938년에는 장편 소설 《구토》를 발표하여 실존주의 문학을 창시했다. 존재론적인 우연성의 체험을 그대로 기술한 듯한 이 작품의 특

수성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그는 신진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참전했다가 도이칠란트 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1940년에 수용소를 탈출한 뒤, 메를로퐁티 등과 반(反)나찌스 저항 운동을 조직했다.

1943년에 철학적 주저 《존재와 무(無)》, 희곡 《파리》를 출판했고, 계속해서 소설 《자유에의 길》 등을 집필했다.

3막극 《파리》는 프랑스를 점령한 도이칠란트 군에 대한 저항을 우의(寓意)로 표현한 작품인데, 별로 호평을 받지 못했으나, 이 작품의 상연을 계기로 카뮈와 알게 되었다.

철학 논문인 《존재와 무》는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선(善)

이라고 보는 그리스도 교적 존재론을 정면에서 부정한 반신학론(反神學論)이라 할 수 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쓴 존재론으로서 결정적인 논문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전후의 사조를 대표하는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문학의 최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의 길》은, 파리에 사는 젊은 철학 교사 마티유를 주인공으로 하여, 비행동적인 인텔리 부르즈와가 전쟁을 체험한 뒤에 행동적인 인간으로 변신하여 <자유>의 의미를 체득해 가는 과정이 각권이 서로 다른 소설 기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사르트르는 미국을 방문하여 각지에서 강연하였고, 폴랑, 메를로퐁티, 아롱 등과 함께 1946년에 월간지 《현대》를 창간하여, 전후 문학의 선구자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사르트르는 평론 《문학이란 무엇인가》(1947년)에서 문학의 양가즈망(사회 참여)을 주장했고, 이어 《실존주의란 무엇인가》(1946년), 희곡 《무덤 없는 사자(死者)》(1946년), 《공손한 창부》(1946년) 등을 발표하여 명성을 날렸다.

사르트르의 문학 주장은 《실존주의란 무엇인가》와 특히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밝혀져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문학가의 사회 참여>란, 그보다 전에 발표한 《구토》나 《존재와 무》에서 볼 수 있었던, 허무주의의 그림자가 짙은 세계관과의 사이에 비약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역시 전쟁을 체험함으로써 사르트르 자신의 주체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를 신조로 삼은 그가 한때 《공산주의의 평화》(1952년 7월호부터)를 발표하여 자기 모순의 표면을 드러내자, 카뮈, 메를로퐁티 등은 그와의 교제를 끊었다.



알제리 전쟁 때에는 알제리의 독립을 지지하여 정치 활동과 문학을 병행했으며, 《악마와 신》(1951년), 《광기와 천재》(1954년), 《알토나의 유폐자들》(1959년) 등의 희곡과 철학 논문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제 1 권 《철학적 총체의 이론》(1960년)을 간행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다. 이 점에서 그는 결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며, 또 공산당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여기에 실존주의자로서의 그의 고유한 입장이 있는 듯하다.

그는 196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으며, 1980년에 75세로 생애의 막을 내렸다.

司馬遷 사마 천 (기원전 145? ~ 기원전 86?)

고대 중국의 역사가

사마 천(司馬遷)은 전한(前漢)의 역사가인데, 자는 자장(子長)이며, 태사공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태어난 해는 기원전 135년이라는 설도 있으나, 보통 145년이라고 한다.

부친인 사마 담은 천문(天文)과 달력에 밝고, 고전에도 통달해 있었다.

부친은 썩시 성 출신으로, 무제가 즉위하자 그를 섬겨 천문, 달력, 기록을 맡아보는 장관인 태사령이 되었다.

사마 천은 어릴 때부터 부친에게서 학문과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열 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어려운 글들이 씌어진 책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세가 되자 천은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한 다음, 2년 후에 비로소 무제를 섬겼다. 그 후에도 공무로 여러 차례 여행을 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게 되어, 역사를 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천이 35세 때인 기원전 110년, 부친은 무제가 태산에서 거행된 봉선(封禪)의 의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을 분하게 여기다가 병이 나서 죽었는데, 죽을 때 천을 불러서 머리맡에 앉혀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태사령으로 있으면서 이렇다 하게 자랑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특히 마음에 두고 있던, 춘추부터 한(漢)까지의 역사를 써서 남기지 못해서 원통하기 짝이

없구나. 천하의 역사가 이미 다 상실되려 하고 있다. 나는 이 일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구나. 알겠느냐 천아, 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다오.”

천은 부친의 유언을 듣고, 역사를 써서 남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천은 부친의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었다(기원전 108년). 그리하여, 올바른 역사를 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태사령의 직책인 달력을 고치는 일을 해야 했고, 또 무제가 자주 각지를 순행하여 그를 따라다녀야 했으므로 역사를 쓸 시간적 여유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이리하여, 천이 역사를 쓰는 일에 착수하게 된 것은 42세쯤 되었을 때였다. 그 동안 해 오던 태초력을 기원전 109년에 완성하자, 부친의 유언에 따라 통사(通史)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했다. 집에는 부친이 모아 둔 자료가 많이 있었고, 궁중에도 중요한 기록이 많이 있었다. 천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실대로 **쓰려고** 했다.

‘내가 쓰는 역사는 오직 <기술(記述)할> 뿐이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천은 이런 생각으로 역사를 써 나갔다. 그리하여, 6년 가량 세월이 흘렀다. 역사를 편찬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천에게 뜻밖의 재난이 닥쳐왔다.

때마침 기원전 99년에, 한나라의 이 능이란 장군이 흉노와 싸우다가 패전을 하여 포로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몹시 화가 난 무제는 중신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경들은 이 능을 어떻게 처분하였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해 보오.”

그러자, **신하들은** 하나같이 엄벌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독 사마 천만은 이 능의 **충절**과 용감함을 찬양하고 두둔했다. 그래서, 무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태사령의 직책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그리고, 궁형이라는, 몸의 일부를 베어 내는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창피를 당한 사마 천은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를 쓰는 일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은,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살아 있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 죽어 버리면 내 문장이 후세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완성할 때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했다.

‘책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 수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몇만 번 형벌을 받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몇 해 후에 출옥하여 집에 돌아온 천은 격심한 정신적 타격에도 꺾이지 않고, 도리어 용기를 내어 다시 붓을 들었다. 한 자 한 귀절에도 **부친**의 유언을 되새기고, 감옥에서 고생한 일을 되새기며 글을 써 나갔다.

이윽고, 무제도 마음이 풀린 듯, 천을 비서관장인 중서령으로 임명했다.

천은 역사를 계속 써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했다. 이것이 《사기(史記)》 130 권이다. 《사기》를 완성한 것은 기원전 91년경이지만, 그것을 고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고 한다.

석가모니 (기원전 566? ~ 기원전 486)

불교의 창시자

히말라야 산맥의 기슭, 네팔의 국경 가까운 곳에 샤카 족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수두다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석가는 수두다나 왕의 맏아들로서 수도인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을 고타마 싯다르타라고 하였다.

태어난 해가 기원전 566년경이라고 하나 확실치는 않다.

석가모니의 석가란 샤카, 즉 종족을 뜻하고, 모니란 성자(聖者)란 말이므로 샤카 족 출신의 성자란 뜻이다.

어머니인 마야가 해산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고타마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양육됐다. 고타마는 호강스럽게 자라며 왕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학문과 기예를 배웠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데다 내성적인 성질이며, 또한 어머니를 여윈 고독감으로 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우연히 성 밖에서 늙어 추레해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사람은 늙거나 병들어 끝내는 죽어 간다. 이와 같은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고타마의 우울한 마음을 밝게 해 주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다. 고타마가 16세가 되었을 때에 야소다라 공주를 왕자비로 맞아들여 아들인 라훌라를 낳았다. 또 춤,

연회, 사냥 등의 행사도 벌이곤 했다. 그러나, 어떠한 인생의 즐거움도 고타마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고타마는 29세 때 마침내 결심하고, 아내와 자식과 모든 영화를 버리고 출가했다. 우선 두 사람의 유명한 선인(仙人)을 찾아가서 도를 닦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진리는 남의 사상을 듣는 것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고생을 해 가며 도를 닦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6년 동안 산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 가며 도를 닦았다. 그러나, 몸만 여윌 뿐,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처럼 고생을 해 가며 도를 닦는 것은 몸만 쇠약해질 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시골 아가씨가 갖다 준 우유를 마시고 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고생스럽게 도를 닦는 것을 그만두었다. 기력을 회복한 고타마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 정좌하고 앉아서 사색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 35세 때의 일이다.

부처는 그 길로 비나레스에 가서, 도를 닦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전날 고생하며 도를 닦던 시절의 다섯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폈다.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늙는 고통, 병들어 앓는 고통, 죽음의 고통,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고통 등이 있는데, 그 원인은 모두 아집(我執: 자기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 다섯 사람은 처음으로 부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는 그 후부터 8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5년 동안, 갠지즈강 유역의 중부 인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쳤다.

“인생은 쓸쓸한 나그넷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 가며 살아 나가야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에 대해서,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제 자식을 지키듯이 생물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고, 만물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무렵, 인디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세습적인 신분의 차별이 있었다. 곧 바라문(승려), 크샤트리아(왕족이나 무사), 바이샤(평민), 수드라(노예), 이렇게 크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또 많은 계급이 있었다.

거대한 석가모니상



각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대로 같은 직업을 물려받고, 단 계급 사람과의 결혼은 물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조차 금지당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이 신분 제도에서는 제외되어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천민도 있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생각은 달랐다.

“새나 짐승과 달라서 사람은 평등하다. 카스트 제도는 의미가 없다.”

이 자비, 평등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가다 국과 코살라 국의 왕을 비롯하여 각지의 부자들도 신자나 제자가 되었으며, 그 밖에 신분이 낮은 사람과 동물의 가족을 벗기는 백정,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천민들까지도 부처를 따르게 되었다.

마가다 국에서는 나중에 석가의 후계자가 된 마하캇사파가 제자가 되었으며, 또한 석가의 2대 제자로서 유명한 사리풋타와 못갈라나도 제자가 되었다. 고향인 샤카 국에서는 사촌인 아난타와 데바닷타 외에 아들인 라홀라도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다.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에는 직업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신자가 되는 사람(재가 신자)과, 세상을 버리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는 사람(출가 신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었다.

또 석가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여자 출가자도 인정했다.

인디아는 장마철이 되면 서너 달이나 줄곧 비가 내린다. 장마철에는 한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수양 생활을 보내고 장마가 끝나면 각지를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뿜기 때문에 교단은 차차 커지게 되었다. 교단의 중심 인물로는 장삿군과 수공업자들이 많았고, 농민은 적었던 것 같다(이것이 뒷날, 농업국인 인디아에서 불교가 쇠퇴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석가에게도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데바닷타

는 파벌을 만들어서 따로 떨어져 나가, 석가 대신 교조가 될 생각을 품고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다. 또한, 불교가 생겼을 때와 거의 같은 무렵에 바르다마아나는 자이나 교를 주장했는데, 불교가 주로 **크샤트리아** 사이에 퍼진 데 대하여 이 자이나 교는 바이샤 사이에 퍼졌다.

석가는 80세가 되었을 때, 한 신자가 바친 음식을 먹고 중독이 되어 심한 설사병에 걸렸다.

그리하여, 몸이 몹시 쇠약해진 석가는 샤카 국과 마가다 국과의 중간에 있는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마을의 사라 쌍수 밑에 누워서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석가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모아 엮어서 세상에 널리 폈다.

불교는 그 후 아소카 왕의 보호와 원조를 받아서 인디아에서 매우 성해졌으며, 이윽고 버마, 스리랑카, 타일랜드, 중국, 한국, 일본, 인도지나 반도 등지에 퍼져서, 오늘날 그리스도 교, 이슬람 교와 더불어 세계의 3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석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유체(遺體)는 화장을 하였으며, 유골(사리)은 생전에 석가와 관계가 깊었던 각지의 국왕과 종족에게 여덟으로 분배되어 사리탑을 세워서 모시게 되었다.

1898년에 카필라 성에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피프라와에서 옛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무덤 속에서 유골을 담은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그 항아리는 기원전 몇 세기경의 문자로 ‘석가의 유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팔등분(八等分)되었던 석가의 유골 가운데 하나라고 하며, 불교국인 타일랜드 왕실에 넘겨 주었다.

세 네 카 (기원전 4 ? ~ 기원후 65 ?)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아네우스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시인, 정치가이다. 스토아 학파의 고명한 철학자로 네로 황제의 가정 교사를 지냈으며, 나중에는 집정관을 지냈다. 그는 또한 변론가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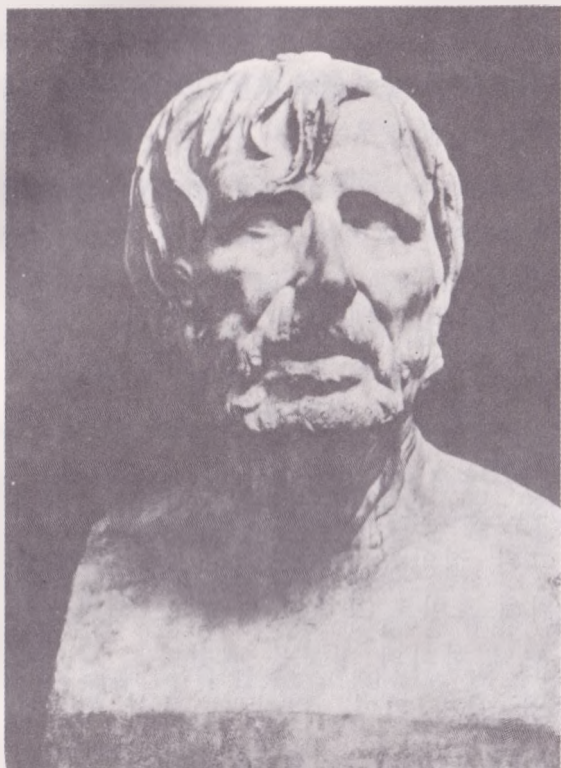
그는 지금은 스페인의 코르도바인 코르두바에서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고, 그는 어렸을 때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 로마로 보내졌다. 그는 로마에서 피타고라스, 스토아, 퀴닉 학파의 철학을 배웠다.

그는 웅변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 검찰관으로서 원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41년, 그는 먼첫번 황제 칼리굴라의 누이인 율리아 리빌라와 함께 음모를 꾸몄다는 죄로 코르시카로 추방되었다.

마침내 49년,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가 세네카를 구해 주었다. 그녀는 세네카를 불러들여 네로의 가정 교사를 하게 하였다.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자, 세네카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아포칼로킨토시스》를 써서, 클라우디우스의 죽음에 얹힌 정치적 상황을 풍자했다.

네로가 제위에 오르고 1년 동안, 세네카는 부루스와 함께 네로를 잘 보필하여 훌륭한 정치를 하게 했다. 네로의 어머니는 야심이 많고 난폭한 성격이었는데, 네로를 통하



세네카의 석상

여 정권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참다 못한 네로는 어머니를 죽여 버렸다. 세네카는 네로를 위해, 아그리피나가 황제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꾸밌으며, 그러한 음모가 발각되자 자살해 버렸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원로원에 보냈다.

62년에 부루스가 죽자, 세네카의 지위는 위태롭게

되었다. 네로는 오포니우스 티겔리누스 같은 악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온갖 악정을 자행하였다. 또, 낭비를 일삼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상태도 형편 없었다.

세네카는 네로에게 누누이 충고했으나 네로가 듣지 않자, 로마 근처의 시골로 은퇴했다. 그는 거기에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다가 65년, 가이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의 음모 사건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자살을 명령받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그는 스토아 철학에 에피쿠로스 주의를 첨가한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세르반테스 (1547~1616)

유우머와 풍자에 뛰어난 작가

세계 명작 가운데 하나인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는 지금으로부터 400년쯤 전에, 에스파니아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가까운 알칼라 데 에나레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으나 귀머거리이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발라돌리드, 코르도바, 세빌라, 마드리드 등지로 자주 이사를 다녔다.

그러므로, 세르반테스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1569년에 이탈리아에 건너가 아쿠아비바 추기경을 섬기며 그 밑에서 일했고, 그 다음 해에 병사가 되어 1571년에는 유명한 레판토 해전에 참가했다. 그 때 가슴에 상처를 두 군데 입었고, 왼손은 평생 못 쓰는 불구자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흔적은 그의 일생을 통해 자랑거리가 되었

세르반테스의 초상



이렇고 감옥에서 나온 세르반테스는 세빌라, 발라돌리드 등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마드리드로 옮겨 가서, 몸이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그 동안에 또 소설을 시작하여, 1605년에 《돈키호테》 제 1부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작자

스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받은 감옥에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문제다하여 세르반테스를 예금해 둔 은행이 파산하여 은행장이 포르투갈인이 행는 관리가 되어 몇 등숙을 사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공금고 안타부시아에 가서 유명한 무적 함대의 직장을 수직하릴때만 거둬하게 되자, 세르반테스는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이와 같이 소설을 써도 잘 팔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아 있는 것은 2편뿐이다.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 후 몇 편의 희곡을 썼으나 지금 남을 쓰기 시작하여 《라 갈라테아》를 발표했다. 그러나, 별 1585년, 그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묵인 소설(牧人小說)의 여자와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다.

패했고, 1584년에 카탈리나 데 팔라시오스라는 18세 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극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것도 실나,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주위로부터 냉대를 받아왔고 1580년에 자유의 몸이 되어 마드리드에 돌아왔음이 하였다.

기가 불들려서 죄를 혼자서 뒤집어쓰는 등, 유감한 행동을 안이나 계속했다. 그 무렵, 동료를 달아나게 해 주고는 자를 받고 임신 출세를 꿈꾸고 귀국하는 도중에 해적에게 습격을 받아,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포로 생활을 5년 감사는 1575년에 에스파니아의 해군 사령관으로부터 감사

다.

도 예기치 못했을 정도로 성공했으나, 생활은 여전히 곤란했다. 그러나, 이 한 작품으로 하여 세르반테스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상 빛나는 이름을 남기게 됐다.

물론 이 작품은 어른을 위해서 쓴 것이지만, 그 줄거리의 변화나 사건이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린이용으로 고쳐 써서, 어느 사이에 어린이들을 위한 《돈키호테》가 완성되기도 했다.



《돈키호테》중의 삽화

세르반테스를 대표하는 이 《돈키호테》의 정확한 제목은 《재치 넘치는 기사 돈키호테 데 라 만차》이다. 이 작품의 제 1부가 발표된 것은 그의 나이 60세가 가까와서였다. 작품은 곧 좋은 반응을 보여, 실패의 연속이었던 인생의 만년에 이르러 세르반테스는 겨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바로 전해에 제 2부가 씌어졌다.

이 소설을 쓴 최초의 목적은, 당시 유행하던 황당 무제한 <기사 이야기>를 희극화함으로써 이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작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써 나가는 도중에, 세르반테스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 체험을 삽입한 대하 소설이 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주변에 전개되는

이상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상과 현실의 상극이 너무나 잘 포착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단순한 재미나 익살 혹은 풍자 이상의 진가를 발견하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으며, 스탕달, 플로베르, 도스토예프스키 등은 열렬한 세르반테스 찬미자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1615년에 《돈키호테》 제 2 부가 완성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는 12편의 단편을 모은 《모범 소설집》(1613년)과 《신작 희극 8 편과 막간극 8 편》(1615년)이란 책을 출판했다.

그 중에서도, 사실적인 단편과 짙막한 막간극은 《돈키호테》 다음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만년에는 종교 단체에 들어갔으며, 죽을 때까지 그의 생활은 가난했다. 그의 일생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듯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만들어 낸 소설의 주인공인 돈키호테와 같은 인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반대로 그와 같은 인품이었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명작 《돈키호테》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1616년 4월 23일, 영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와 같은 날, 69세의 생애를 마쳤다.

유작으로는 세르반테스가 죽은 다음 해에 출판된 《페르실레스와 시히스문다의 노고》가 있는데, 이 소설은 걸작은 아니지만 공상적이며 문장이 좋다.

그는 이론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선천적인 소설가였다. 독창성, 분방한 공상, 기발한 전개, 성격 창조 등은 그의 문학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든 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세 잔 (1839~1906)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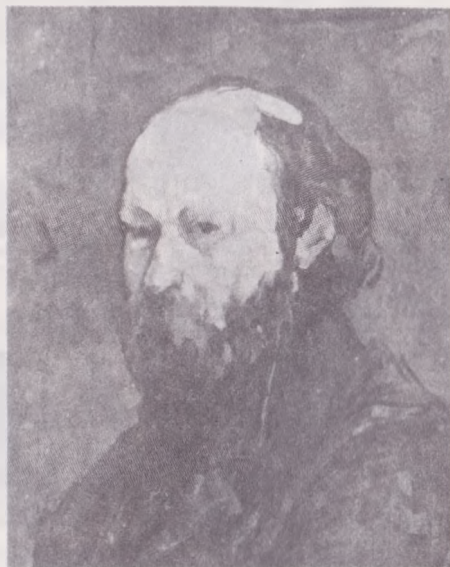
1874년, 파리에 있는 어느 사진관의 이층에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무명 협회 전람회>가 열렸다. 이 전람회는 모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법의 회화를 창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미술 운동이었다.

전람회의 결과는 심한 비웃음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해를 받지 못했다. 그 때 출품된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그림의 제목을 따서 후에 사람들은 이 집단을 인상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폴 세잔도 그 전람회에 《목 맨 사람의 집》이라는 풍경화를 출품하였다.

세잔의 자화상

세잔은 남 프랑스의 엑스앙 프로방스에서 1839년 1월 19일에 태어났다. 아버지 루이 오귀스트 세잔은 임신 출세한 인물로 처음에는 모자 제조업자였는데, 차차 돈을 많이 벌게 되어 뒤에 은행가가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천한 집 태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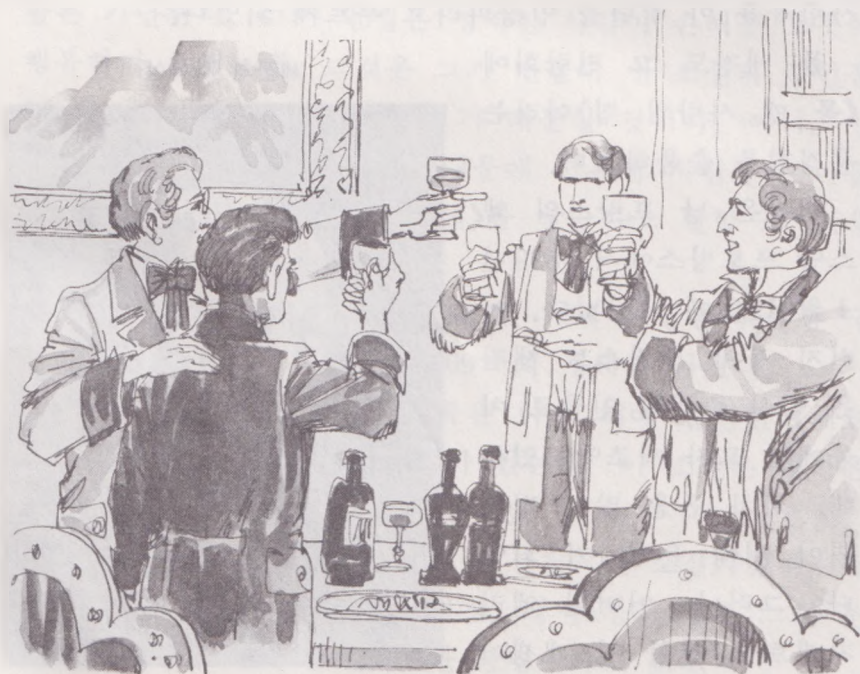


었다.

그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국민 학교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의 한 학년 아래에는 나중에 프랑스의 대문호가 된 에밀 졸라가 있어서 친하게 사귀었으며, 그로부터 문학의 영향을 받아 음악과 시작(詩作)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 후,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엑스 법과 대학에 들어갔으나,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렬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일했는데, 먼저 파리에 나가 있던 졸라로부터 강력한 권유를 받아 21세 때 파리로 나갔다.

이렇게 하여 파리로 진출한 세잔은 졸라의 안내를 받아 미술계와 문학계에 얼굴을 내밀어, 나중에 인상파 화가로



성공한 피사로와 기요
 뱅 등과 사귀었다. 그
 러나, 천성이 내성적
 인 그는 선배 예술가
 들과는 친숙해지지 못
 하고 혼자서 루브르
 박물관에 다닐 때가
 많았다. 다만, 피사로
 와는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생트 빅트와르 산과 샤토 느와르〉

그 곳에서 반 년쯤 있다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이
 번에는 본격적으로 화가가 될 결심을 하고 다시 파리에 나
 왔다. 그리하여 1863년, 관립 미술 학교의 입학 시험을 치
 렸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듬해에 보드레이 가에 아틀리
 에를 마련하고, 열심히 화필을 움직여서 그림 물감을 나이
 프로 바른 듯한, 두껍게 칠한 그림을 그렸다. 자유롭게 대
 답하며 거친 붓자국을 남기는 화풍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가까운 동안, 몇 번이고 전람회에 출품
 했으나 낙선만 거듭했을 뿐, 세잔은 사람들에게 좀처럼 인
 정을 받지 못했다.

세잔은 고독하게 연구를 계속했고, 모든 것을 혼자의 힘
 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엄격한 성격은
 점점 더 엄격해져 갔다.

1872년에는 파리 근교 퐁트와즈에서 피사로와 함께 살면
 서 인상파의 수법을 받아들여 밝은 색채의 초상화 등을 그
 렸다.

그 무렵의 인상파 화가들은 새로운 기법으로 색채를 내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

화가들의 특징이었다.

보통 보랏빛을 나타내려면 빨강과 파랑의 두 가지 빛깔을 팔레트 위에서 섞어서 칠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캔버스 위에 원색의 빨강, 파랑의 작은 점들을 교대로 나란히 놓이게 칠해 나갔다. 그것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이 빨강과 파랑의 점들이 보는 사람의 눈 속에서 혼합되어 보랏빛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보랏빛은 미리 혼합해서 칠한 보랏빛보다 훨씬 밝고 선명하게 보인다. 이것은 색채 분할법이라는 새로운 수법으로서, 이제까지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법이었다. 그러나, 세잔은 색채만을 파고 들어가서 자연의 표정을 따라다니는 수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자연은 그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깊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것을 회화로 표현해 보려고 했다. 이

무렵에 이르러서 세잔은 드디어 자신의 독특한 방법을 발견해 낸 것 같다.

그래서, 세잔은 형태의 짜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의 형태를 원형이나 원통형, 원추형, 사각형 등으로 생략해서 포착하려고 했다. 사람의 머리는 대체로 원형이다. 그리고, 몸통은 원통형이다. 이렇게, 세잔은 형태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근원이 되는 형태를 잡으려고 마음 먹었다. 자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울창하게 무성한 숲은 하나의 원추형으로 보인다. 그는 자세한 부분은 버리고 그 전체의 모양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한 원형이나 원통형, 원추형과 같은 기본이 되는 추상적인 모양은 자연의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리는 사람이 그 형태를 포착할 때의 마음 속에 생겨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형태를 자연물의 모습을 빌어서 여러 가지로 융해시켜서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표현한다는 조형 양식을 썼다.

세잔은 이러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유명한 《목 맨 사람의 집》이나 《오베르의 길》 등의 걸작품을 창조해 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했듯이 인상파의 제1회 전람회에 이 《목 맨 사람의 집》을 출품했으나 평판은 대단히 나빴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세잔과 같은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의 그림을 바르게 감상할 만한 식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작품을 그려서 몇 번이나 전람회에 출품했으나, 번번이 낙선했다. 게다가, 그는 체질적으로 도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친숙할 수 없었다.

마침내 1880년 무렵에 이르러, 그는 차차 인상파의 그루
우프에서 떨어져 끝내는 고향인 엑스로 돌아가서 그 곳에
서 살게 되었다.

이 무렵 이후로 그는 완전히 독자적인 화법에 몰두하여
정물화나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되었다. 화풍도 처음 그림
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의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그림
에서 밝고 색채감이 풍부한 물체의 형태에 특징이 있는 것
으로 변해 갔다.

그러나, 그렇듯 대담하고 자유로운 묘사도, 권총으로 그
린 것 같은 그림이라고 비난을 받아 당시에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고작 화상(畫商)을 하는 볼라르나 화가인 고
갱, 르느와르 외에 비평가 몇 사람이 그의 그림의 새로운
의미를 알아차렸을 정도였다.

이와 같이 그의 그림은 거의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1892년에는 고향인 엑스에 틀어박혀 거의 하
루도 쉬지 않고 스케치를 하러 나갔다. 그 사이, 그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극도로 완고한 성격으로 변해 갔다.

1906년 10월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 망토
를 뒤집어쓰고 스케치를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감기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되었다. 그
래도 맑은 날은 뜰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으나, 그 해 10월
22일 아침, 세기적인 화가이면서도 불운했던 그는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사망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그의 새
로운 화풍은 그 후에 이어진 야수파나 입체파 등에 큰 영향
을 주었다.



셰익스피어 (1564~1616)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3일, 중부 잉글랜드의 중앙부인 위릭셔 주 스트랫퍼드라는 아름답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셰익스피어의 집안은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는 마을의 유지로서 피혁 가공을 하는 한편, 농산물의 중간 도매업을 하였다. 따라서, 그의 집안은 비교적 유복하게 살았다.

셰익스피어

당시의 영국에서는 연극열이 대단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재주 있는 연예인들로 구성된 극단이 나라 안을 순회 공연하고 있었다. 그 때 네 살의 셰익스피어는 난생 처음으로 마을의 공회당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보고 크게 감격했다.

그는 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흉내내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10세 되던 1574년, 그는 스트랫퍼드에 있는 문법 학교에 입학하여 라틴 어를 공부했다. 그러나, 1577년에 말가죽과 쇠가죽의 폭등에 이은 갑작스런 폭락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파산하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는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해야 했다.

18세가 되던 해에, 그는 그 마을 근처에 사는 앤 헤더웨이라는 처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셰익스피어보다 8세나 연상이었는데, 그들은 결혼 3년 만에 한 차례의 쌍둥이를 합쳐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이런 환경이었지만 셰익스피어는 독서를 즐겼으며, 언젠가는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꼴똥해 있었다. 즉, 연극의 본고장인 런던에서 배우나 작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의 나이 23세 때인 1587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 곳에서 1백 50킬로미터쯤 떨어진 런던으로 나갔다. 물론 의지할 곳이나 유력한 소개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극장 주위를 맴돌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당시 극장의 입구에 세워 두는 말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실망하지 않고 틈틈이 공부를 하며 글을 쓰기도 했고, 선배들의 연기를 견학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점차 주위의 인정을 받아, 무대에도 서게 되고 유망주라는 지목도 받았다.

드디어, 1592년에는 런던 극단의 새로운 별로 각광을 받게 되어 못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 무렵, 영국에서는 여왕 엘리자베드 1 세가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던 시대로, 신천지의 개척이나 군사적 방면뿐만 아니라 예술의 발전도 장려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예술가와 이름 있는 배우들이 런던으로 몰려들었고, 동시에 대규모의 극장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연극 애호가나 관객이 늘어나고 이름 있는 극장들이 늘어났지만, 연극과 각본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여 새로운 극, 새로운 작품을 바라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셰익스피어에게 새로운 활동 무대를 제공했다.

드디어 1592년 3월 2일, 런던의 연극계, 아니 세계의 연극계에 기념할 만한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1591년에 씌어진 셰익스피어의 《헨리 6 세》가 스트레인지 경의 극단에 의해 상연되어 영국 사람들을 온통 열광시켰던 것이다.

1594년, 런던에 크게 만연했던 악성 유행병이 물러가고, 그 때까지의 여러 극단들이 재편성되자 궁내 대신(宮內大臣) 단체의 극단이 조직되었는데, 그는 배우 겸 전속 작가로서 이 극단에 속하게 되었다(이 극단은 제임스 1 세 즉위 후에 국왕 단체가 되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의 정전(正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37편의 희곡과 대소 6 편의 시이다. 창작 활동을 시작한 것은 1590년 전후라고 생각되지만, 처음의 약 5년 동안은 말하자면 습작 시대로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헨리 6 세》《리처드 3 세》 등의 사극과, 《말괄량이 길들이기》《한여름밤의 꿈》 등의 희곡, 그리고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갖가지 형식의 극을 시도했으며, 두 개의 설화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루크리스의 능욕》도 이 시기의 작품이고, 영국 서정시의 걸작인 《소네트 집》도 거의 대부분이

1593년에서 1596년경에 씌어진 것이다.

다음의 5년 동안은 그의 희극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로, 《베니스의 상인》을 비롯하여 한층 더 깊은 인간의 관찰과 원숙한 필치로 《뜻대로 하세요》 《십이야(十二夜)》 등 셰익스피어 희극의 걸작들을 집필했다. 물론 사극에도 뛰어난 것이 많아, 《헨리 4세》에 등장하는, 위트가 풍부하고 몸집이 큰 희극적 인물 폴스타프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불후의 성격 중의 하나이다. 브루투스과 안토니우스의 연설로 유명한 《줄리어스 시이저》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 거기서는 이미 다음 바극 시대의 시작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국가적인 면에서도 당시 영국은 강국 에스파니아를 무찌르고 세계의 일등국이 되었고, 학문과 예술도 대단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 또한 생기 넘친 인생의 찬양과 생활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점차 화려한 시대에서 정돈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은 반성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여름밤의 꿈》의 발레



세기가 바뀌는 이른바 1600년대에 이르러,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어둡고 깊숙한 면을 엿보게 하는 저 유명한 4대 비극을 썼다. 《햄릿》(1600~1601), 《오델로》(1604~1605), 《리어 왕》(1605~1606), 《맥베드》(1605~1606) 등의 네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생가

컴컴한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인생 응시의 표정, 전율할 정도의 심각한 비극성, 장대한 스케일 등은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작품들로서,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진다. 이 4대 비극이야말로 세계 극작사상 불멸의 금자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이 비극 속에는 희극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조금도 희극 같지가 않아서, <어두운 희극> <문제의 희극>이라 불리고 있다.

이 비극의 구름은 1609년경이 되어서야 겨우 걷히기 시작했다. 《겨울밤의 이야기》《폭풍우》 등의 이른바 <로맨스극> 시대이다.

《폭풍우》의 주인공 프로스페로우의 ‘우리들은 꿈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보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은 잠으로부터 시작되어 잠으로 끝난다.’라는 말에서, 말년의 셰익스피어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다. 즐거움도 슬픔도 다 겪은 후의 폭풍우 자국과도 같은 적막 속에서의 체념으로, 조화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듯하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 어느 것이나 인생이 나아갈 길을 암시해 주고 바른 길로 가는 지침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것이 진리라는 점과, 생생한 묘사와 대사의 리듬으로 독자 또는 관객을 사로잡아 끌고 가기 때문이다.

1601년 무렵부터 셰익스피어는 10년 동안의 대부분을 고향인 스트랫퍼드에서 보내다가, 1616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1623년에 그의 친구들의 손으로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제 1, 2 절본〉이 편찬되었는데, 이 책에 붙이는 송시(頌詩)에서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벤 존슨은 ‘한 세대의 것이 아니고 만대의 것이다.’라고 셰익스피어를 높이 평가했는데, 실제로 그의 인기는 그의 살아 생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쇠퇴하지 않고 있다. 코울리지의 ‘천만인의 마음 속에서 찬양받는 셰익스피어’라는 찬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

오늘날, 성서와 더불어 셰익스피어 전집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어느 국민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

학습 인명 사전 찾아보기 (숫자는 왼쪽부터 차례로)

가리발디.....1	린 위탕.....8	빅토리아 여왕.....14	와 트.....19	크롤랜드.....26
간 디.....1	릴리엔탈.....8	사르트르.....14	왕 안식.....19	클레오파트라.....26
갈릴레이.....1	릴 케.....8	사마 천.....14	왕 일명.....19	키에르케고르.....26
게이뤼삭.....1	링 칸.....8	석가모니.....14	왕 유.....19	키이츠.....26
게 일.....1	라 네.....8	세네카.....14	왕 회지.....20	키케로.....26
고 갠.....1	마르코니.....8	세르반테스.....14	왕 스페인.....20	킬.....26
고 야.....1	마야살.....8	세 진.....14	우 틴트.....20	타고르.....26
고 호.....1	마야크 트웨인.....9	세익스피어.....14	울 프리.....20	테니스.....27
공 자.....1	마젤란.....9	소크라테스.....15	워싱턴.....20	토스카니니.....27
공쿠르 형제.....1	마호메트.....9	솔로몬.....15	워어즈워드.....20	토인비.....27
괴 테.....1	막사이사이.....9	쇼 팅.....15	윌링턴.....20	틀스토이.....27
구텐베르크.....2	말.....9	순 자.....15	윌즈.....20	루르제네프.....27
그레셴.....2	말 로.....9	슈 만.....15	워 고.....20	르루만.....27
그림 형제.....2	마코오믹.....9	슈베르트.....15	윌리엄 3세.....20	파가니니.....27
나이팅게일.....2	맥아더.....9	스워프트.....15	윌슨.....20	파브르.....27
나폴레옹.....2	맷더스.....9	스토우.....15	유 방.....21	파블로프.....27
난 셴.....2	먼 로.....9	스트라빈스키.....15	유 비.....21	파스칼.....27
넌세르.....2	엔 델.....10	스티븐슨.....15	유유리.....21	파스테르나크.....28
네 후.....2	엔델스톤.....10	(조오지).....15	유종현.....21	파스트로.....28
넬슨.....2	모 네.....10	스티븐슨.....15	유클리드.....21	파운드.....28
노 벨.....2	모딜리아니.....10	(R. L. B.).....15	이 백.....21	매러데이.....28
노 자.....2	모리악.....10	시바이쎄.....15	이 세인.....21	퍼어킨.....28
누르하치.....3	모 방.....10	시벨리우스.....15	이 슌.....21	파일 박.....28
뉴우튼.....3	모 세.....10	시트라우스.....16	입 셴.....21	테스탈로치.....28
나이제.....3	모소스.....10	시 톤.....16	지엔호프.....21	푸스터.....28
다비드.....3	모 움.....10	실 러.....16	장 건.....22	포도.....28
다아원.....3	모짜르트.....10	산 원.....16	장 조.....22	포모크너.....28
다 윗.....3	모파상.....10	아르키메데스.....16	잔다르크.....22	포 우.....29
단 테.....3	몽고메리.....10	아리스토텔레스.....16	장 제스.....22	폴 로(마르코).....29
도스토예프스키.....3	몽테뉴.....10	아문센.....16	제 너.....22	푸시킨.....29
도 연명.....3	미 셴.....11	아스카.....16	제퍼슨.....22	풀 턴.....29
돌 런.....3	미추린.....11	아아크라이트.....16	조이슨.....22	푼치니.....29
두 보.....3	미켈란젤로.....11	아우구스티누스.....16	존 슌.....22	퓨윌리치.....29
뒤 남.....4	밀 러.....11	아이젠하워.....17	줄 라.....22	프랭클린.....29
뒤 마.....4	밀 렌.....11	아이시타인.....17	주 공.....22	프라이트.....29
듀우이.....4	바그너.....11	아펜젤러.....17	주 돈이.....22	프뢰벨.....29
듀 골.....4	바 올.....11	안데르센.....17	주 올.....22	플라톤.....30
도보르작.....4	바이런.....11	안젤리코.....17	주 함창.....23	플레밍.....30
들라크루와.....4	바 하.....11	안 진경.....17	주 자.....23	플로베르.....30
드뷔시.....5	발레리.....12	안토니우스.....17	주 네.....23	플루타르코.....30
디아젤.....5	발자크.....12	일렉산더 대왕.....17	증 자.....23	피카소.....30
디즈니.....5	백 게이.....12	일 칸.....17	지 도.....23	피타고라스.....30
디킨즈.....5	버어뱅크.....12	알프레드 대왕.....17	지웃토.....23	하 델.....30
라이트 형제.....5	베 델.....12	안페르.....17	재멜린.....23	하이다.....30
라파엘로.....5	베드로.....12	매치슨.....17	차이코프스키.....23	하야비.....30
러더퍼드.....5	베르디.....12	매틀리.....17	채 윤.....23	하이네.....30
러 셸.....5	베를렌.....12	앤더슨.....17	처어프.....23	하이드거.....30
레스스.....6	베를리오즈.....12	앵베르.....18	체호프.....24	하이든.....31
레오나르도다.....6	베실리우스.....12	아스페르스.....18	차츰코프스키.....24	한니발.....31
빈치.....6	베시머.....12	앙 건.....18	창기조간.....24	한 유.....31
렘브란트.....6	베에토벤.....12	앙 자.....18	카루스.....24	함무라비.....31
로 당.....6	벨.....13	앙 제.....18	카 위.....24	허어설.....31
로오렌스.....6	보들레르.....13	언더우드.....18	카아네기.....24	허슬리.....31
록펠러.....6	보 일.....13	카트워드 3세.....18	카트라이트.....24	헤 겐.....31
롤 랑.....6	복카치오.....13	에디슨.....18	카탈 대제.....24	헤라클레이토스.....31
롤 엠.....7	볼 타.....13	에머슨.....18	카탈스.....24	헤로도투스.....31
롯시니.....7	볼테르.....13	에 뎀.....18	카프카.....25	헤르츠.....31
린트겐.....7	뫼티첼리.....13	예수 그리스도.....18	칸 트.....25	헤밍웨이.....31
루비시타인.....7	분 셴.....13	에이츠.....18	케네디.....25	헤 세.....32
루 소.....7	브라임스.....13	오비디우스.....18	케말 파샤.....25	현 델.....32
루우스펠트.....7	브라운.....13	오울컷.....18	케사르.....25	앨런 켈러.....32
루 터.....7	(로버트).....13	오 움.....18	케인즈.....25	앨름홀츠.....32
루노와르.....7	브라운(K.F.).....13	오우엔.....19	케플러.....25	호라티우스.....32
리 델.....8	브라운(베르너).....13	오우 헨리.....19	코페르니쿠스.....25	호 머.....32
리빙스턴.....8	본.....14	오일러.....19	코 호.....25	호도도온.....32
리스터.....8	브라크.....14	오랜하이머.....19	콜롬부스.....26	혹.....32
리 흥장.....8	브루투스.....14	옥타비아누스.....19	쿠베 랩.....26	휘트먼.....32
린 네.....8	비스마르크.....14	와일드.....19	쿠 브크.....26	홀.....32
린드버거.....8	비 제.....14	와 토.....19	퀴리 부인.....26	입포크라테스.....32

세 계 편/소년소녀
위 인 전 기
전 32 권



© KUM SUNG PUBLISHING CO., LTD. 1985 · 1987

개정신판발행 1985년 4월 30일
 개정중판발행 1987년 11월 10일

발행인 김 나 준
 발행처 (주) 금 성 출 판 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10-6호
 전화(713)9651~8 우편번호 121

제 판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인 쇄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태성제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1권 유신
삼국통일의 명군



2권 원효대사
신라의 고승



3권 선지
서해를 토벌한



4권 보고
해상 무역의 왕



9권 윤원
한국이 바뀔
영웅



10권 화
조선 국기의 아자



11권 신사임당
여왕의 귀마



12권 이순신
백제를 복원
할 영웅



17권 윤종
조선의 대
군주



18권 조원
대몽골 전쟁
을 이끈



19권 김충
조선의 개국
초상



20권 김대
한국 최초의
선왕



조선의 개국초상



조선의 개국초상



조선의 개국초상



조선의 개국초상





고매한 문장가
5 최 치 원



고려의 시조
6 왕 건



목화씨를 들여온
7 문 익 점



위대한 임금
8 세종대왕



《동의보감》을 쓴
13 허 준



북학파의 영수
14 박 지 원



천재 화가
15 김 홍 도



실학의 거두
16 정 약 용



조선 말기의웅웅아
21 김 옥 군



문학 혁명의 지도자
22 전 봉 준



국어학의 선구자
23 주 시 경



항일 독립의 혁명가
24 김 구



민족 음악가



영민한 어린이의 벗



일일 순국 소녀



식일 분하미 시인

소년소녀 위인전기 14 밀 레

권말 특집 부록 : 학습 인명 사전

